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8
2021
VOL. 302

haninnewsinni@gmail.com

since 1996 한인뉴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Korea Desk 021-2078-5877 http://www.kiwoom.co.id

KIWOOM
SEKURITAS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내일에 투자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가 함께 합니다

SCAN THE QR CODE TO FOLLOW US ON SOCIAL MEDIA AND DOWNLOAD OUR KIWOOM HERO

OJK OTORITAS JASA KEUANGAN · IDX Indonesia Stock Exchange · kpei · ksei Indonesia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Treasury Tower 27F, District 8 Kawasan SCBD Lot 28, Jl. 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Selatan 12190
T. 021-5010-5800 | Korea Desk 021-2078-5877

Drive SANTA FE together.

New SANTA FE 출시

전자식 변속 버튼 및 세련된 실내 디자인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및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여유로운 실내공간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 판매 및 서비스 문의 :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 가격 및 기타 상세내용 홈페이지 (www.hyundai.com/id) 참조

HYUND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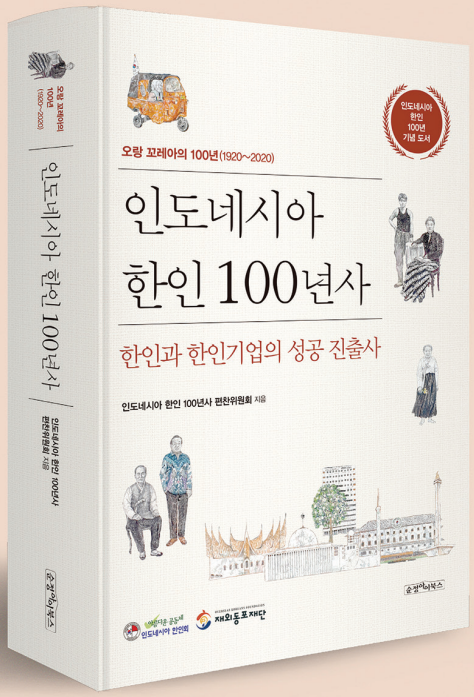
Call Center: 0 800 1 878 878 (Toll free 24 hours) **www.hyundai.com**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ndonesia Hyundai Motors Indonesia @hyundaimotorid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역사를 집대성한 책

★인도네시아 한인과 한인기업의 역사와 성공 이야기★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 기념 도서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양장본 · 판형 163×235 쪽수 512

적도에서 펼쳐진 한인들의 치열한 삶과 도전의 역사! 열정 그리고 꿈!

• 인도네시아에 대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역사 사용서 •
인도네시아의 성공적 진출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다.

★ 인도네시아 한인기업 개척 도전사와 '산업별 한인기업 50년사(史)' 총망라
★ '오랑 꼬레아'가 인도네시아 땅에 새긴 특별한 삶의 현장 보고서

순정아이북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개인회원께는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책자 요청시 무료로 드립니다.
연락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 1960 308 (지역에 따라 배송비 개인부담)

월간 한인뉴스 8 2021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contents

2021. 8. 통권 302호

8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팬데믹 위기
인구보너스, 축복일까 재앙일까?
10
한인회가 띄운 두번째 전세기
12
한인회, 한인사회 COVID-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사진: 김상균(시인, 사진가, 여행가)
2021년 7월 충북 괴산

18 이코노미 인사이트 – 메타버스의 도래 <황준규>
20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44 – 독재자의 길
24 월간 뉴스브리핑 <데일리인도네시아>
27 함께 극복해요
28 두 개의 시선 – 행복한 어른, 행복한 아이 <헬른>
30 나 바 수 <민선희>
34 자카르타 맛집탐방 – PUTIEN <주윤지>
36 책이답하다3 – 제로 이코노미 <조연숙>
39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정창훈>
42 치과의사의 세계 – 정기천 편
48 가자마다의 빨리빠 맹세 <유은규>
52 끝나지 않은 잔혹사 그리고 '역사'박물관 이야기 <조은아>
56 행복에세이 – 대 항해 시대 <하승창>
59 편집장 모니터
60 타임머신 대신 지하철 타고 암사 선사유적지로! <김재이>
62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300) <이승민>
66 생활정보

인도네시아 팬데믹 위기
인구보너스, 축복일까 재앙일까?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는 독립선언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세계 5위 경제대국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과연 헛된 꿈일까? 미래의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바뀔까? 디지털로 전환하는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를 필두로 한 에너지혁명,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신종 바이러스 사태 등 불확실성투성이다. 인도네시아 미래 경제가 궁금하다면 인구 통계에 주목하라. 인구 통계는 10년 뒤 세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이며, 인도네시아의 미래 경제를 전망하고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한 나침반과 같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실시한 2020년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인 인도네시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1년에 53%에서 2020년에 70%로 꾸준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270만 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다. 한편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 비중은 1971년에 2.4%였으나, 2020년에 5.9%로 증가했고,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의 8%로 확대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020년 현재 2억7천20만명에서 2065년에는 3억3천700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2030년대 초까지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노동력과 소비가 늘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인구보너스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MZ세대의 인구 비중을 볼 때, 밀레니얼세대는 25.8%와 Z세대는 27.9%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인구보너스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대량 실업 사태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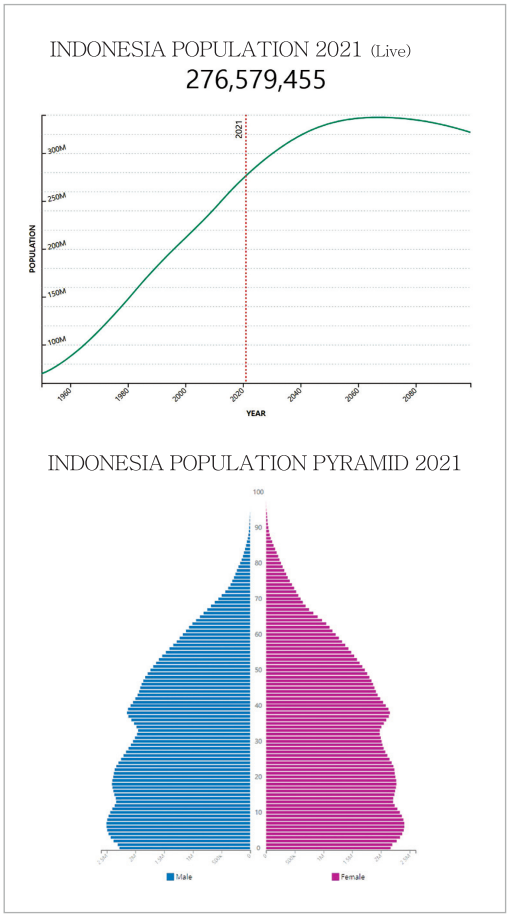
MZ세대는 밀레니얼+Z세대를 합친 단어로 1981~2010년생을 칭하며 기성세대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체 인구의 70.7%로 경제 성장에 좋은 시기로 진입했다.

인도네시아과학원(LIPI)의 나와위 인구통계 분야 연구원은 "현 시점을 '기회의 창 또는 재앙의 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MZ세대에 주목해야한다. 적절한 대응에 실패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통계학자와 경제전문가들은 인구보너스가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되지 못하면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함정을 피해라' 라는 주제의 향후 10년 프로젝트 2014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받은 IT 기술을 갖춘 젊은 층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자산이다" 라며, 준비된 올바른 정책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때, 인도네시아는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인 2025~2030년 기간에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배당 효과란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14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 생산가능인구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이 하락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뜻한다. 인구보너스 효과라고도 불린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는 최근 일명 옴니버스법이라는 고용창출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인구보너스를 자본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개도국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빈곤율 0%에 근접하고, 지금보다 5배 이상의 1인당 소득인 2만3천달러, 현재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국내총생산(GDP)은 7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에 대재앙이 발생했다. 2020년에 26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실업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7.07%에 달했다. 온라인 구직사이트 잡스트리트(Jobstreet)에 따르면 불확실성과 경제 둔화가 이어지고 팬데믹 기간에 일자리를 찾는 신규 노동자와 경력자의 취업 대기 인력이 배로 증가해 고용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경제재정개발연구소(Indef) 또히드 아흐마드 대표는 "일자리 부족과 신규 인력의 유입으로 실업이 360만명으로 증가할 것" 이라고 추산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등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노동력의 낮은 생산성과 교육 수준으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스메루 연구소의 리까 꾸알라 데위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부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교육에 투자하고 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젊은 층이 나이들었을 때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방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노동부 산하에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부가 주도해 외국대학과 지방대학 간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여년 전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글로벌 대기업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최근 가속화하며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과연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 '포스트 차이나' (Post-China)는 어느 나라가 적당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와 여러 모로 유사한 점이 많은 베트남일까, 인종과 언어, 종교 등 다양성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일까? 인구통계와 사람에서 답을 찾아보자.

한인회가 띄운 두번째 전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사태를 겪는 인도네시아에서 감염 교민 9명을 태운 2차 전세기가 1차(7월 2일, 감염교민20명 탑승)에 이어 1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2일, '코로나 폭증' 인도네시아 감염 교민 20명 전세기로 귀국[연합뉴스]

1차에는 플라잉닥터스가 인도네시아 스리위자야항공 여객기(B737-800)를 임차해 환자들을 태웠으며, 당초 22명이 탑승하길 원했지만 2명은 상태가 악화해 타지 못했다.

탑승자 가운데 18명은 경증이지만, 만성질환 등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행을 선택했고, 나머지 2명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비행기에 올랐다.

그동안 자카르타발 인천행 여객기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는 한인도 과태료 부담 등을 조건으로 탑승은 가능해 귀국 후 확진이 잇따랐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이달 3일 자카르타 출발 비행기부터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는 한인에게 비행기표를 주지 않도록 지침을 강화했다고 대사관이 공지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여파와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 들어 확진자가 급증했고, 이는 정부 공식 집계일 뿐 실제 감염자와 사망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7월 11일 오후 10시 자카르타의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항에서 한인 코로나19 확진자 9명을 태운 전세기가 이륙했다. 당초 11명이 예약했으나, 50대 남성 한 명이 9일 상태 악화로 숨졌고, 또 다른 50대 남성 한 명은 탑승 집결지에 왔지만, 전세기에 탈만큼 상태가 좋지 못해 다시 입원했고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귀국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한인 환자 9명을 태운 전세기(레거시 600 기종)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중간 급유를 하고, 이날 오전 8시 36분(현지시간)께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인도네시아 한인환자 태운 에어앰뷸런스 [플라잉닥터스 제공]

인도네시아 코로나 감염 교민 9명 2차 전세기로 귀국[플라잉닥터스 제공=연합뉴스] 사진은 모두 한인 환자들이 개인 격리기구를 착용한 모습.

환자들은 비행 동안 개인 격리기구를 착용했고, 6명은 산소공급을 받았다.환자들은 이제 6대의 구급차에 나눠타고, 부산의료원과 안동의료원 등 병상이 배정된 여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인회가 전세기를 띄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전세기가 등장한 것은 에어앰뷸런스의 경우 코로나 환자를 1~2명밖에 태우지 못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에어앰뷸런스와 전세기 모두 환자 소속 회사나 자비 부담인데, 자카르타~인천 에어앰뷸런스 비용은 1억2천500만원이고, 전세기는 1인당 2천만원 정도를 낸다. 6월 25일에는 현대차와 협력사 출장자 가운데 감염자 14명과 감염 후 회복자 4명 등 18명을 태운 전세기(B737-800)가 한국으로 향했다.

대사관에 신고한 한인 확진자는 7월10일 기준 254명이고, 이 가운데 13명이 목숨을 잃고 77명이 에어앰뷸런스 또는 전세기로 귀국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는 사망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 감염으로 증세가 악화할 수 있는 한인은 최대한 신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반 여객기를 이용할 경우 인도네시아발 한국 입국자는 한국인이더라도 7월4일부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감염 한인들의 에어앰뷸런스, 전세기 문의가 계속 이어져, 플라잉닥터스는 3차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다. (7. 12)

(참고:연합뉴스)

12일, 인도네시아 코로나 감염 교민 9명 이송한 2차 전세기[연합뉴스]

인천공항 착륙 후 구급차 6대 나눠타고 이송 [연합뉴스]

한인회, 한인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최근 7월 한 달 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최다확진을 기록하며 인도네시아는 의료붕괴라는 현실과 마주했다.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으로 6월부터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일일 확진자 수는 검사 인원에 따라 5만명~2만명대까지 고르지 않지만,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5월 31일 182만여명에서 7월 27일 324만명으로, 141만8천여명이 두 달 사이 늘었다.
일일 사망자 수 또한 7월 중순부터 매일 1천명을 넘다가 7월27일, 2천69명으로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누적 사망자는 8만8천여명(2021.7.28)이다. 대사관에서 집계한 한인 감염자는 누적 331명이고, 이 가운데 16명이 숨졌다.(2021 7. 28)
지난 7월7일 대사관을 주축으로 한인회, 코참, 한인기업, 협회 등이 참여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동포 확진자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한인 대기업, 은행은 물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각계의 자발적 지원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한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 '산소발생(호흡)기' 50대 확보 지원 :

대사관(5)과 한인기업(25), 플라잉닥터스(15) 및 정토사관자재회(5) 등의 선제대응으로 현재 한인회가 대여목적으로 보관중인 산소발생기는 총 25대, 다음 주까지 25대가 추가 입고될 예정이다. 이 중 20여대 이상이 각 지역한인회로 배송중이다. 이로써 자카르타 뿐 아니라 여타지역의 동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7월19일 시행첫날 아침 땅그랑 거주 교민의 비상연락으로 무사히 지원받을 수 있었다.

■ 'COVID-19 구급키트' 지원 :

동포 확진자를 위한 약 1,000세트의 비상 구급키트(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소독제, KF94 마스크, 알콜티슈, 비타민 C&D, 코로나관련 비상 치료약품 등)를 준비 중이다. 본 키트는 일부 기업에서 후원해온 물품과 후원금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구성되며, 대사관 협조로 일부약품 입고 및 통관이 완료되는 8월 첫주경부터는 신고하는 동포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산소발생기

■ '한인의사 원격 의료자문' 및 '명지병원 원격진료' 지원 :

병실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지의 자카르타 소재 '조은내과' 의 원격 의료자문을 정해진 시간 내(근무일 기준 오후 4~8시)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인회-명지병원' 간 업무협약(협약식 8월 4일 예정)을 통해 한국의 서울 소재 명지병원의 원격진료(근무일 한국시간 기준 오전 8:30~오후 5:30) 상담도 곧 지원할 예정으로 코로나19는 물론 일반 응급상황 대응 시 상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중증의 동포 확진자에게 꼭 필요한 병실 확보에 있어서 대사관과 한인회, 한인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지 주요병원에 의료장비 및 시설을 지원해나가는 방안 등으로 한인배정 병상확보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에어앰뷸런스 및 특별전세기 운항 역시 플라잉닥터스와의 업무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항시 열어두고 있다.

한인회로 도착한 구호물품을
챙기는 사무국

■ 일시귀국 인도네시아 재외국민 백신예방접종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가 변이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역조치로서 7월 6일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백신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정책으로,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체류 중인 재외국민 다수가 인도네시아로 재입국하지 못해 발이 묶인 상황이다.

한국 관계당국에 인도네시아 출국 예정인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백신접종 허용을 요청해 온 결과, 우선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복귀가 필요한 인니 재외국민 명단(증빙자료 첨부)을 제출해달라는 답을 얻은 상황이라 7월23일(금) 오전 12시까지 한인회 이메일로 신청을 받아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 인도네시아한인 백신접종 희망자 접종 가능

불투명한 외국인 백신공급 정책에 불안해진 우리 동포들이 고충을 해결코자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주인니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인니보건부 고위 책임자 면담을 통해 백신접종과 관련한 한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달, 그 결과 백신접종 희망자명단을 받아 지정장소에서 매일 일정 수의 한인들에게 적은 규모지만 백신접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많은 한인이 시시각각 변화되는 정책 및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접종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가며 백신접종을 하고 있었다.

이번 1차 모집은 1일 백신 접종자수가 한정적이나 특히 고령층의 기저질환자·노약자와 같이 상대적으로 백신접종에 취약하거나, 꼭 필요함에도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을 우선적으로 1차, 이미 운영 중인 백신접종처 한 곳을 지정하여 한인에게 1일 할당되는 분량만큼 백신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앞으로 1일 접종자수 확대 및 추가접종처 지정 등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 7월 3일에서 5일사이 한인회 이메일 신청받은 120명중 선착순으로Kantor Kesehatan Pelabuhan Kelas I Tanjung Priok, (https://maps.app.goo.gl/yGYpUzP4dnou6ZYY7) (021) 43931045 에서 18세 이상 유효한 체류허가(KITAP/KITAS-NIK) 보유한 한인을 대상으로 7월 26일부터 1일 15명씩 시노백을 접종하고 있다.(2021. 7. 29)

협력하는 한인사회
함께라면 COVID-19,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인사회가 하나되어 극복해 나갔듯이, 우리 동포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재인도네시아한인회로 모였다.

지난 7월7일, 민관 확대 T/F 회의에서 동포 확진자 위기대응을 위한 한인회의 지원 요청 및 "코로나19 구호팀" 구성 제안에 공감하고, 특히 진출기업들은 동포 확진자 치료를 위한 산소발생기 등 필수장비 및 비상물품 비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한인 대기업, 금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각계에서 재정적 지원이 모이면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박재한한인회장은 "어려운 이웃과 동포를 돌아보는 우리 한인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단체와 개인, 기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코린도 서정식 전무

강봉주 우리소다라 은행 부행장

SAMINDO 백원선 전무

이강현 현대자동차 아태권역본부 COO

장윤하 KOSA회장

안창섭 KOGA 회장

김종헌 무궁화 유통 대표

ZINUS 이재구 상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COVID-19 의료구호 관련 기부금품 현황

기부금

NO.	일자	성명	단체명 / 기업명	금액	
				USD	IDR
1	2021-07-12	전명현	외식업협의회		20,000,000
2	2021-07-14	장윤하	중소기업협의회(KOSA)		100,000,000
3	2021-07-14	김종헌	월드옥타자카르타지회		20,000,000
4	2021-07-14	김우진	SAMINDO ELECTRONICS		100,000,000
5	2021-07-15	박길용	HAN YOUNG INDONESIA		20,000,000
6	2021-07-15	이종윤	신발협의회(KOFA)		50,000,000
7	2021-07-15	김종헌	무궁화유통		20,000,000
8	2021-07-15	이지완	JIN YOUNG		10,000,000
9	2021-07-16		대감집		10,000,000
10	2021-07-16		SKY FOAM		10,000,000
11	2021-07-16	이기홍	한인건설협의회(AKCI)		30,000,000
12	2021-07-16		ZINUS GLOBAL INDONESIA		100,000,000
13	2021-07-16	박재한	JAVA PALACE HOTEL		100,000,000
14	2021-07-16		이직수	295	
15	2021-07-17	안창섭	봉제협의회(KOGA)		50,000,000
16	2021-07-20	신현만			5,000,000
17	2021-07-20	고정윤			10,000,000
18	2021-07-21	이지선			500,000
19	2021-07-21		하나은행		1,000,000,000
20	2021-07-21	강호성	ACMI		30,000,000
21	2021-07-22	신동수	MITRA INDONESIA		50,000,000
22	2021-07-22	박우용			500,000
23	2021-07-22	NO NAME			500,000
24	2021-07-22	NO NAME			1,000,000
25	2021-07-22	송종미			500,000
26	2021-07-22		TK INDUSTRIAL INDONESIA		100,000,000
27	2021-07-22	최순규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2,000,000
28	2021-07-23		POSCO GROUP		200,000,000
29	2021-07-23		FEEL BUY INDONESIA		20,000,000
30	2021-07-23		미래에셋증권		30,000,000
31	2021-07-24	강현주			1,000,000
32	2021-07-25	민현기	MIN GOOK		10,000,000
33	2021-07-25	박창희	KHRIS EXOTIC BAG		5,000,000
34	2021-07-26	서영율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		50,000,000
35	2021-07-26	이종윤	SINAR MASANDA INDUSTRI		10,000,000
36	2021-07-26		ACE건설(ACE E&C)		20,000,000
37	2021-07-27	박영진			3,000,000
38	2021-07-27		PARKLAND WORLD INDONESIA		50,000,000
39	2021-07-27		SAMINDO RESOURCES		100,000,000
40	2021-07-28		KB BUKOPIN	26,056	
41	2021-07-28	강윤석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		10,000,000
42	2021-07-29	이호덕	ROYAL SUMATRA VICTOR JAYA RAYA		100,000,000
43	2021-07-30		IBK은행		100,000,000
44	2021-07-30		우리소다라은행		200,000,000
계				US$ 26,351.00	Rp 2,749,000,000
합계			*US$1=RP14,400		Rp 3,128,454,400

기부품

NO.	일자	성명	단체명 / 기업명	물품내역		수량
1	2021-07-12		주인니대한민국대사관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5대
2	2021-07-12		HYUNDAIMOTORMANUFACTURING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7대
3	2021-07-12		TUNAS SAWAERMA(코린도)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6대
4	2021-07-12	여둘금	재단법인 정토사관자재회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5대
5	2021-07-12	김육찬	GARUDA TWIN JAYA	산소발생기(누보라이트)		2대
6	2021-07-12		LX 인터내셔널	산소발생기		10대
7	2021-07-12		FLYING DOCTORS KOREA(비즈인사이트)	산소발생기(에버플로)		15대
8	2021-07-12	김인기	INDOCORE PERKASA	산소포화도 측정기(옥시미터)		200개
9	2021-07-15	이원형	HASTA PUSAKA SENTOSA	산소포화도 측정기(옥시미터)		100개
10	2021-07-15	박용호	WELLS PRIMA GLOBLA	알콜티슈		10박스
11	2021-07-16		대웅제약	타미빅트		64,000정
12	2021-07-16		대웅제약	호이스타		96,000정
13	2021-07-19	양태화	BOSUNG INDONESIA	구급키트 나눔 쇼핑백		500매
14	2021-07-19	양재영	C&H	소독제		300개
15	2021-07-30		동아제약	판피린티		15,000정
계					15건	

박재한 자바팔레스호텔 대표

한영 박길용 법인장

김종헌 월드옥타 자타르타 회장

POSCO GROUP 박용남 상무, 김용혁 법인장

태광 박준영 경영관리부장

이종윤 KOFA 회장

SMI 이종윤 대표

진영 이지완 대표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해 십억 루피아 기부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지난 7 월 27 일 인도네시아 한인회에 한인동포 코로나 극복 지원금 십억 루피아를 기부하였다. 이번 기부는 최근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다.

해당 기부금 전달행사는 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 회장에게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박종진 법인장이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서 박종진 법인장은 하나은행을 대표하여 “이번 기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밝혔다.

코참, 인니 정부에 의료장비 지원

KB BUKOPIN 최창수 은행장

LX 인터내셔날 김훈 상무

코참(KOCHAM)은 회원사를 비롯한 인니 진출 한국기업들의 기부금을 모아, 코로나 관련 의료 장비를 구매하여 다음달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금 내역 (납입일순)

NO.	단체명/ 기업명	금액
1	코참 송창근 회장	Rp.100,000,000
2	재인니신발협의회	Rp.50,000,000
3	재인니봉제협의회	Rp.50,000,000
4	PT.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ITL)	US$5,000
5	우리컨설팅	Rp.30,000,000
6	PT. HANYOUNG INDONESIA	Rp.10,000,000
7	PT. GARUDA TWIN JAYA	Rp.30,000,000
8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Rp.30,000,000
9	PT. TK INDUSTRIAL INDONESIA	Rp.100,000,000
10	PT. MITA	Rp.50,000,000
11	PT. ASSENS	Rp.5,000,000
12	PT. DEWA CITRA SEJATI	Rp.3,000,000
13	PT. PRATAMA ABADI INDUSTRY	Rp.50,000,000
14	PT. SINAR MASANDA INDUSTRI	Rp.30,000,000
15	PARKLAND WORLD INDONESIA	Rp.50,000,000
16	수출입은행	$5,000
17	IBK INDONESIA	Rp.30,000,000

또한, 현대 엔지니어링은 1억원 상당의 의료용 산소발생기, 환자 모니터, 인퓨전 펌프, 실린지 펌프를 코참을 통해 인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나,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의 도래

- 병중(病中)의 호접지몽(胡蝶之夢)

글: 황준규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부장)

몸도 마음도 고된 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눈앞이 캄캄해 질 틈도 없이 스마트폰의 다이어리를 확인 후 그 이전 일주일 동안 접촉했던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했다. 몇 평 남짓한 공간에서의 격리생활은 (군 복무 시절 옴에 걸려본 탓에) 한번 경험이 있어 그렇다 쳐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인커뮤니티 및 회사 내에서까지 확산세가 뚜렷해지자 혹여 그 인과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과 우려 그리고 의심이 한데 섞여 계속 마음을 짓눌렀다. 때때로 외로움도 밀려왔으나 그런 감정은 사치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낮에는 급하게 구한 독한 약에 취해서인지 머리를 들기도 어려웠고 밤에는 고열로 고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일년 반 동안 감염우려에 바깥 출입 조차 삼가해왔던 아내마저 결국 전파감염으로 확진 되자 그 원망과 허무함의 정도를 짐작하기 어려웠고 아이들 또한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책감이 부른 마음의 고통은 고열에 비할게 아니었다. 때문에 (평소 바래왔던 여유로운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즐겨 듣던 한국의 뉴스나 경제 방송도 부질없게 느껴졌으며 격리에 돌입하며 챙겨온 몇 권의 책들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욱이 그 좋아하던 넷플릭스 드라마에도 흥미를 잃었으며 심지어 전화 벨소리와 톡 수신 알림음 조차 귀찮게 느껴지며 때때로 항바이러스제보다 항우울제가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끝을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밀려들었다. 그렇게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디게 흐르며 차츰 열과 몸살 증상이 사그라들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후각이 조금씩 살아나자 PCR에 도전하였으며 다행히 결과는 'Negative' 였다. 물론 회복의 기쁨도 있었으나 감염 의심이 들자마자 아이들 전파 우려에 마치 영화 기생충의 기택(송강호분)이 지하벙커로 숨어들 듯 집안의 작은 방으로 완벽히 몸을 숨긴 아내의 빈자리 걱정이 앞섰다. 고마운 분들의 음식 원조 덕분에 아이들은 부모의 부재중에도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으나 청소와 세탁, 설거지 등 모든 집안일을 아이들이 오롯이 감당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집의 상태로 쉽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아내 없이 아이들과 집안일을 꾸리던 또 몇일의 시간이 지난 후 아내 또한 회복하고 아이들 모두 안전한 것을 확인한 순간의 위로와 안도의 기쁨은 앞으로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PPKM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한 재택근무는 작년에도 경험해 보았으나 여전히 익숙지 않았다. 작은 방에서 회사 ERP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하다 때때로 떨어지는 처리속도를 감내하기에는 성격이 너무나 급하다는 사실을 수시로 깨달았다. 그러고보니 작년에 새로 전학한 학교를 아직까지 등교하지 못한 채 1년 넘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버티며 익숙지 않은 외국학교의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종일 집에만 있다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었는데 흥미를 끌었던 것은 아홉살 막내가 (온라인 수업) 방과 후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반친구들과 온라인상에서 수

시로 만나 어울려 노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아이가 헤드폰을 쓰고 떠들어 대며 즐기던 모습을 그저 아이가 평소 좋아하던 온라인 코딩 수업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지 않아 수업이 아니라 같은 반 아이들과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에서 각자가 직접 만든 아바타의 모습으로 만나 가상의 공간을 함께 돌아다니며 노닥거리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광경에 생경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장소만 메타버스속 가상공간으로 바뀌었을 뿐 필자가 어릴적 친구들과 특별한 일 없이 동네 어귀를 어슬렁 거리며 놀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메타버스는 '초월' 이라는 뜻의 '메타' 와 '우주' 를 뜻하는 '유니버스' 의 합성어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제 생활과 마찬가지로 소통하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현재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인 로블록스에서는 건축사나 게임설계자 같은 직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돈까지 벌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대표 메타버스인 네이버 '제페토' 는 벌써 165개국의 2억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자리를 틀었는데 미래의 잠재 고객인 십대와 이십대에 다가서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각축전이 활발하다. 심지어 'Earth2' 라는 부동산 게임 플랫폼은 지구를 그대로 가상공간에 재현하여 가상의 부동산 매매를 중계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입을 다물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듯 메타버스의 세계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나아가 일이나 놀이, 사회생활 등 대부분을 메타버스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 또한 멀지 않은 것 같다. 주목해야할 점은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세상, 신경제시대를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텍스트 기반의 페이스북에 이어 사진기반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 유투브 등이 소셜 네트워킹을 주도해 왔다면 그 다음은 바로 메타버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스 또한 얼마전 인터뷰에서 "메타버스가 모바일 인터넷 세상을 이어받을 후계자" 라 확신하며 미래를 주도할 새로운 산업의 장(場)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페이스북은 전체 직원 중 15% 이상을 메타버스 연구인력으로만 배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등 주로 게임의 형태로 십대들을 타겟으로 시장에 진입하였으나 머지않아 컨텐츠 소비는 물론이고 전 세대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다양한 일을 하고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생길 것이라고 글로벌 IT 기업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의 세상이 옳다, 좋다 라는 선호나 가치 판단에 앞서 내가 하는 사업이 혹은 내 직업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큰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건 메타버스의 세계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의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4를 구입한 것이 정확히 십년전 이야기다. 떠올려보면 당시까지 컴퓨터 조차도 제대로 사용해 보신 적이 없던 부모님이 피쳐폰을 버리고 스마트폰을 쓰시며 카톡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는 말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류 첫 세대가 아닐까 하는 깨달음과 함께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어느 기업들이 빛을 발할지 고민하다 PPKM의 하루를 마감했다.

독재자의 길

9월 30일 쿠데타
수퍼스마르
역사 속으로

다룰이슬람의 인도네시아 이슬람군 계급장(좌), 체포된 고위장교들

지난 호에 이어

"내 영웅인 대통령을 내가 왜 죽이려 하겠습니까?"

단쩨는 대통령이 거기 있다는 표시인 황금색 깃발이 게양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까르노가 공산주의자들의 꼭둑각시가 되었다고 비난하던 뻐르메스타 반군사상에 단쩨가 영향을 받은 정황이 뚜렷했으므로 역시 반란군의 지령을 받았을 것이란 심증이 강했다. 단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려 한 것이지 국가에 반역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군사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치명적인 최신예 전투기로 대통령이 있던 독립궁에 기총소사를 해댄 사건이 유죄가 아니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단쩨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배짱과 용모가 많은 여성들의 호감을 샀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당대 최고 여배우였던 리마 멀라띠도 그의 구명을 위해 뛰었다고 한다. 그녀는 다니엘의 감방까지 여러 번 찾아와 수까르노에게 사과하고 감형을 청원하라고 권했으나 당시 28세였던 단쩨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자기 소신을 고집하며 사과제의를 완곡히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수까르노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 놈 참 맹랑한 녀석이군. 아직 젊고 미래도 창창하겠지!."

그는 단쩨에게 내려진 선고된 사형을 8년형으로 감형해 주었고 군복무 기간에 대한 군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었다. 하지만 또 다른 버전에서는 수리야다르마 공군참모총장이 구명에 나서 사형을 면했다고도 한다. 실제로 수까르노는 1961년 6월 22일 중앙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모든 뻐르메스타 관련자들을 사면했고 같은 맥

여배우 리마 멀라띠의 젊은 시절

락에서 1964년 단쩨도 사형에서 8년형으로 감형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수까르노가 하야한 후인 1968년 단쩨도 수하르토 정권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반전과 음모를 내포하고 있듯 이 독립궁 기총소사 사건에는 몰리 맘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하는 또 다른 버전이 존재한다. 요가와 영어를 가르치던 몰리에게 흑심을 품게 된 수까르노가 다가와 추파를 던졌는데 공교롭게도 그녀가 단쩨의 약혼녀였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독립궁과 보고르궁에 갈겨된 기관포탄에 단쩨의 개인적 감정이 묻어 있었을 개연성이 엿보이는 정황이다. 그 둘은 훗날 결혼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훗날 이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은 단쩨는 그가 대통령궁을 공격한 사건과 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변했다. 물론 단쩨가 그의 행위를 멋진 대의로 포장한 터에 그 질문을 쉽사리 수긍할 리 없었다. 이 버전은 수까르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당시 뻐르메스타 반란군을 배후에서 돕고 있던 미 CIA가 퍼뜨린 헛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물론 기총소사 사건이 삼각관계의 치정이 얽힌사건이라는 논리는 좀 무리일 듯 하지만 수까르노가 아름다운 몰리에게 수작을 걸었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의 복잡한 여성편력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솔직히 너무나 믿음이 간다. 사족이지만 감방에서 나온 단쩨는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2007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다룰이슬람

1962년 5월 14일 바이뚜라힘 회교사원에서 열린 이둘아다 기념 기도회 앞줄에 앉게된 사누시 피르깟이라는 자가, 숨겨들여온 권총으로 수까르노를 저격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이둘 아다는 이슬람력 12월 10일에 열리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축제로 아브라함이 알라의 명으로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다 알라의 제지를 받아 대신 염소를 바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꾸란의 에피소드들은 기독교 성서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인다. 성서에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 하니 말이다.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자손이 오늘날 아랍민족들이니 아브라함은 아랍인들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알라는 아랍인들의 하나님이란 것이 꾸란의 가르침이고 사라의 소생인 이삭과 그 피붙이 야곱의 후손들이 유태민족이니 아브라함은 유태인의 조상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아무튼 이날 바이뚜라힘 사원에서 무엇 때문인지 사누시의 총신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발사한 총알들이 모두 수까르노를 비껴갔고 오히려 인근의 국회의장 KH 자이눌 아리핀을 비롯해 사원 기도실 안의 다른 사람들 여럿에게 부상을 입혔다. 불과 5-6 미터 앞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순간 갑자기 수까르노가 둘로 보여 조준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나중에 사누시가 밝혔다. 당시 파다했던 소문처럼 수까르노는 모종의 주술적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일까? 사누시는 다음 순간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고 수까르노는 그날도 생채기 하나 입지 않고 살아 남았다. 사누시의 배후엔 그를 사주한 보고르 소재 이슬람 선생인 끼아이 바크룸이 있었고 다룰이슬람의 입김이 선명해 보였지만 수까르노는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선고를 어딘가 석연찮다는 이

유로 나중에 감형해 주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벌써 수까르노를 노린 다섯 번째 암살기도였다.
한편 인도네시아군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정부를 공격하던 다룰이슬람 반군들을 1962년 서부자바와 아쩨, 1965년에는 남부 슬라웨시에서 일련의 효과적인 작전으로 섬멸했고 다룰이슬람의 지도자 까르토수위르죠도 마침내 체포되어 1962년 9월 처형되었다.

다룰이슬람(이슬람의 집이라는 의미) 또는 DI/TII(다룰이슬람/인도네시아 이슬람군)이라고 약자로 쓰이는 이 조직은 NII(인도네시아 이슬람국)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격 이슬람 조직이었다. 1942년 카리즈마 넘치는 과격 이슬람 정치인 스까르마디 마리쟌 까르또수위르요에 의해 조직된 이슬람 민병대로 시작된 이 조직은 샤리아법만을 유일한 규범으로 여겼고 여기서 파생된 후대의 조직들은 대체로 테러집단으로 인식되는 제마이슬라미야를 비롯해 비폭력적 종교그룹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망라한다.
다룰이슬람의 설립자인 까르또수위르요는 중부자바의 유전지대인 쯔뿌에서 1905년에 태어나 의외로 네덜란드학교의 세속교육을 받았고 수라바야에서 네덜란드계 대학을 나온 인물이다. 그는 이슬람 민족주의자 쪼끄로아미노또가 마련한 이슬람 기숙사에서 묵으면서 인도네시아 이슬람연합당(PSII)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정치일선에 뛰어들면서 의과공부를 중단했다. 어쩌면 수많은 인명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다룰이슬람 반군의 수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수도 있었던 시점에서 그의 선택이 인생의 진로를 뒤바꿨던 것이다.
그는 서부자바 가룻 인근인 말랑봉을 여행하다가 이슬람 연합당 지역지도자의 딸을 만나 결혼했다. 그는 샤리아율법 중심의 이슬람국가를

다룰이슬람 깃발

인도네시아에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연합당과 노선을 달리해 결국 탈퇴하고 나왔다.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1945년 사이 까르또수위르요는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던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가룻에 무장민병대를 조직했다. 독립전쟁기간 중 까르또수위르요는 서부자바에 자유투쟁조직을 수립하고 이를 '히즈불라와 사빌릴라' 라고 칭했다. 이것이 다룰이슬람의 전신이다. 이들은 네덜란드 점령지 내에서 끈질기게 게릴라전을 벌였다. 초창기의 다룰이슬람 민병대는 공화국의 세속부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1948년 렌빌조약에 따라 공화국 부대들이 반둑라인 너머로 철수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렌빌조약은 서부자바를 네덜란드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까르또수위르요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1949년 8월 7일 아직도 네덜란드군이 맹위를 떨치던 서부자바 한복판에 다룰이슬람(이슬람국가)의 성립을 선포하고 자신은 지도자 이맘이 되어 네덜란드군에 맞서 싸웠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948년 네덜란드의 제2차공세로 족자가 함락된 이후 서부자바로 스며드는 공화국게릴라들도 공격했다. 이제 네덜란드만이 아니라 공화국의 세속정부도 다룰이슬람의 적이 된 것이다. 이때부터 독립전쟁은 네덜란드군, 공화국군, 다룰이슬람군 간의 3파전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1949년 네덜란드가 주권을 이양한 후에도 다룰이슬람조

까르또수위르요

무자까르

다웃 버우르에

직은 해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관할지역으로 진입하는 공화국군을 공격했으므로 완전한 반란으로 진화하며 바야흐로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와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탈영병 출신인 압둘 까하르 무자까르가 이끄는 남부 술라웨시의 반란군들이 1951년 다룰이슬람에 가담했고 1953년 9월 20일에는 다웃 버우르에가 아쩨에서 봉기해 자신들을 까르또수위르요가 영도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국가의 일부분이라고 천명하며 반란에 합류했다.

다룰이슬람은 1950년대 자유민주주의 시기에 당시 아직 미약한 중앙정부를 상대로 크게 득세했고 1957년에는 서부자바의 3분의1을 지배하며 자카르타 외곽까지 작전반경을 넓혀 정부군을 위협하곤 했다. 또한 남부 술라웨시의 90%, 아쩨 지역의 농촌, 산림 지역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 그 지역에서도 까르또수위르요를 조직의 최고권위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이슬람군의 기치 아래 15,000여 명의 무장게릴라를 거느렸고 1957년 중부 자카르타의 찌끼니에서 수까르노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사건과 1962년 이둘아다 기도회에서 수까르노를 저격하려던 사건의 배후에도 다룰이스람이 있었다.

그러다가 1957년 계엄령이 선포되고 1959년 수까르노가 교도민주주의를 선언하자 다룰이슬람 활동도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아미르 파타의 지휘 아래 있던 중부자바의 소규모 다룰이슬람 조직들이 1954년-1957년 사이에 아흐맛 야니 대령의 반뗑 레이더스 부대에 의해 소탕되었고 남부 술라웨시의 입누 하자르의 조직은 1959년에 투항했다. PRRI-뻐르메스타 반란군의 경우와는 달리 투항하지 않은 다룰이슬람에 대한 중앙정부의 처벌은 무거웠다. 아미르 파타는 1954년, 입누 아자르는 우여곡절끝에 1962년 각각 처형되었다.

1959년-1962년 사이에 있었던 3년간의 회담이 가져온 평화협정을 통해 아쩨 지역에서 분쟁이 멈췄고 이때부터 아쩨는 특권을 가진 자치주로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편입, 회복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아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샤리아 율법이 우선하는 이슬람근본주의가 득세하고 중앙정부의 법률과 매우 상이한 통치규범을 가지게 된 이유다. 그러나 극단주의 파벌들은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어서 당시 이 협정에 만족하지 못한 잔당들이 중앙정부는 물론 아쩨 주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계속했는데 그들은 1976년 아쩨독립운동(GAM), 또는 수마트라-아쩨 국민해방전선(ASNLF)으로 발전했다. 산속으로 들어간 반란군들은 사보타지와 무장투쟁으로 30여년간 15,000여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끝에 2007년 12월이 되어서야 중앙정부와 극적인 타결을 맺어 무장해제하고 자진 해산했다.

다음호에 계속

2021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 경제·비즈니스 관련

"현대차그룹·LG엔솔, 인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는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손잡고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까라왕 지역에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만든다. 국내 대표 완성차 그룹과 배터리 기업의 첫 해외 합작법인을 통해 미래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 연산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3자간 투자협약은 전날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과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정 기간 법인세와 합작공장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 ·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합작공장에 대한 지분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50%씩 보유한다.

양측은 각종 법적 절차를 거쳐 3분기 중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4분기에 합작공장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2024년 상반기에는 배터리셀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젝, 태국 사업 철수 결정… 에어아시아에 매각 추진

인도네시아 대표 데카콘이자 오토바이 기반 호출서비스인 고젝(Gojek)이 태국 법인을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Air Asia Group)에 매각하고 태국에서 철수하려 한다고 7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고젝은 전자상거래 대기업 토코피디아(Tokopedia)와 합병을 했고, 이어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시장에 더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케빈 알루위 고젝 대표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고젝은 지분 교환 방식으로 태국 사업체를 5천만 달러에 에어아시아에 매각하는 대신 에어아시아의 라이프스타일 앱 AirAsia SuperApp(기업가치 약 10억 달러)의 지분 4.76%를 받기로 했다. 에어아시아 슈퍼앱의 가치는 약 10억 달러로, 에어아시아 항공사의 가치 8억6,8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에어아시아 슈퍼앱은 여행,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에어아시아 디지털 그룹의 자회사이다. 에어아시아는 항공사업과 슈퍼앱 외에 물류벤처기업 (Teleport)과 핀테크기업 (BigPay)을 소유한다.

에어아시아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경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온라인 기반 사업으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회장은 고젝 태국 사업 인수에 대해 역내 사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젝은 2019년 2월에 태국 스타트업 겟(Get)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성장하는 태국 음식배달시장에 진출했다. 에어아시아가 고젝 태국사업을 인수한 시점인 현재, 고젝은 태국에서 운전기사 5만명과 회원매장 3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고젝은 태국에서 차량호출서비스와 디지털 지불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다 하지만 고젝은 태국 음식배달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인 그랩에 뒤쳐져 있다. 고젝의 태국 사업은 해외 사업 중 가장 작은 규모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적자를 기록했다.

팩데믹 와중에 인도네시아 저비용항공사 '슈퍼에어젯' 출범

인도네시아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슈퍼에어젯(SAJ, Super Air Jet)이 출범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항공업계가 본격적인 기지개를 켠다.
최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SAJ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친 SAJ는 중·단거리 전용 항공기 에어버스 A320 기종 3대로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덴빠사르, 수라바야, 빨렘방 등 국내 10개 노선에서 조만간 영업을 시작한다. A320은 최대 180명 안팎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연비가 뛰어나고 소음이 작은 친환경 기종으로, 안전성도 뛰어나 저가 항공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리 아자리 SAJ 대표는 "지난 3월 순수한 인도네시아 자본으로 설립된 수퍼에어젯은 밀레니얼 세대의 수요에 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SAJ는 인도네시아 최대 민영 항공회사 라이온에어그룹(Lion Air Group)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온에어그룹은 SAJ와 전세기 전문 항공사 FAN(Flyindo Aviasi Nusantara)에 각각 5,180억 루피아와 4,500억 루피아 등 총 9,680억 루피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SAJ는 라이온에어 창업자인 루스디 끼라나와 꾸스난 끼라나 형제의 아들인 다빈 끼라나와 프리나 끼라나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라이언에어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폭락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일일 평균 1,500편에서 코로나19 이후 항공편수를 크게 줄인 200여편으로 축소 운항하면서 경영이 악화해 라이언에어, 윙에어, 바틱에어 등 자회사의 계약직 직원 2,600명을 감원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정책 탓 국가신용 위험도 높여: S&P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Global Ratings(이하 S&P)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 지연이 인도네시아 기업과 국가 예산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7월 19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S&P의 애널리스트 유니스 탄은 "현재 시행 중인 비상사회활동제한조치(Emergency PPKM)가 장기화될 경우 기존의 완충장치들이 사라져 국가신용위험이 상승할 것" 이라고 말했다.
S&P는 2021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4.5%에서 3.4%로 하향조정하고,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정부의 대응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인도네시아 재정적자는 GDP의 6%로, 정부 전망치 5.7%보다 높게 전망했다.
S&P는 인도네시아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S&P의 애널리스트 앤드류 우는 "적자가 증가하고 수익 기반이 낮아져서 인도네시아 이자 부담 부채 지표(Indonesia's interest burden debt metrics)에 압박이 가중될 것" 이라고 보고서에 썼다.
이번 보고서에는 해외시장 개선에 따른 상품 수출 증가는 긍정적인 점이지만 내수판매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정치·사회 관련

인도네시아 국민, 팬데믹 관리 실패한 조코위에 실망

인도네시아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 2차 유행에 직면한 가운데, 조코위 대통령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같이 하락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7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Indonesian Survey Institute)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말에 전국적으로 응답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달 18일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20년 11월에 66.4%에서 12월에 68.9%까지 올랐다가 2021년 6월에 59.6%로 하락했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2021년 10월에 57.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021년 12월에 28.9%에서 2021년 6월에 37.2%로 상승했다.
자야디 하난 LSI 대표는 "지지율이 하락한 두 가지 요인은 확진자 급증과 빠른 경제회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로 인해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에 무능하다고 여기게 됐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둘피트리(르바란) 명절 대이동이 끝나고 델타 변이종이 확산되면서 6월 말에 신규 확진자가 일일 1만5천명을 넘어섰고, 이번 조사는 이 시기에 실시됐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자바 지역에서 일일 확진자가 급증해 병원의 수용력을 넘어섰다. 방역전문가들은 엄격한 이동 제한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지난 7월 3일에서야 자바와 발리 지역에 비상사회활동제한조치(PPKM Darurat)를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방역당국의 예상을 넘어서서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고, 수용능력을 초과한 병원의 주차장과 로비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며 산소 공급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비율은 낮았고, 사람들의 이동성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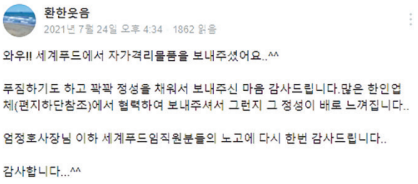
비평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방역당국의 대응에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을 방역실패 원인으로 지목한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지만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사이풀 무자니 리서치앤컨설팅(SMRC)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코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지지율이 올 3월 초에 69.2%에서 5월에 61.8%로 하락했다. 또한 조코위 정부의 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에 대한 지지율도 3월에 61%에서 5월에 52%로 하락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함께 극복해요!!

인도네시아 무궁화유통(대표 김종헌 /한인회 수석 부회장)은 한인들의 고통을 분담하며 COVID-19 확진자를 위해 구호물품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250박스(1박스 Rp.1,500,000 상당)가 확진자들에게전달됐다.



PT. 세계푸드의 엄정호입니다.
요즘, 우리교민들이 심각해진 코로나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맘이 아픕니다.
교민여러분들의 코로나팬더믹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방역지원물품' 를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월소요량이 약200세트니까 연말까지1,000세트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전에 끝나야 하지만요.
'방역지원물품' 은 아래의 협력업체와 함께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업체
- PT. JICO AGUNG (인도네시아판매법인(주)대상)
- PT. Tirta Buana Indoraya
- PT. SEGYE FOOD INDONESIA
- Java Food
- PT. STC NATURAL INDO (서울트레이닝)
-고소애누룽지
- PT. Multi Solusi Nusantara
- 박영미(개인)
- (주)일신산업 인도네시아법인 PT. IS TEXTILE INDONESIA
-PT. TAEWON INDONESIA
-경상북도 자카르타사무소
-PT. KORINUS
-신현수(개인)
- CV. SIYUN.

◆연락처 :카카오톡아이디ujho77
081280535812
https://band.us/band/2711762/post/927200204

교육

행복한 어른 행복한 아이

헬른(Heylen)/ HOTEL GRAN MELIA

지난 7월 23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것 같은데요.
Hari Anak Nasional, 바로 어린이 날이었어요. 한국에는 5월에 어린이 날이 있지요?
이번 8월호에서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권리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아동권리보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들에게는 살아갈 권리, 성장할 권리, 보호받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존엄성을 갖고 참여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이름과 정체성을 갖고 국적을 가질 권리, 생명으로서 존중 받으면서 태어날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금기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믿는 종교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도 있지요.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종교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지요.

아이들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야 하는데, 생물학적인 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살필 수 없을 땐, 다른 사람이 대신 키울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지요. 아이들이 친부모와 헤어질 수 밖에 없거나 분리되어야만 하는 경우엔, 입양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더 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각자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스스로를 성장시킬 권리도 갖고 있어요. 아이들은 또래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장하지요. 이런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해요. 몸이 불편한 채로 태어났거나, 태어난 후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불편해진 경우엔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들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아이들이 가져야 할 권리가 참 당연한 것들인데요. 이런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아동 폭력이 그 이전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해요. 해고를 당하는 가장이 생기고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집안에서 언어적·비언어적인 폭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게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원격학습을 하다 보니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패턴들이 부모들에게 많이 노출돼,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 때리거나 벌을 주는 일이 잦아지게 된 것이죠.

'세이브더칠드런' 은 가정내 아동 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즐거운 놀이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팬데믹이 발발하고 부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아동여성보호위원회(KPAI)와 협력해 전국에 있는 국공립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과 바이러스 예방법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이 되고 혼자 확진이 되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가족이 병원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아이를 분리시켜 보호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는데요. 더 나은 교육과 의료서비스,경제적 기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와 비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책임(CSR)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국의 K-pop을 테마로 활용한 CSR활동도 멋질 것 같고요.

세이브더칠드런의 PR 담당이신 Ibu Dewi Sumanah 가 이번 달 인터뷰에 도움을 주셨어요. 세이브더칠드런과의 협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어른과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동참여

보건

아동보호

나는 바하사로 수다떤다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Yuk! Ikut Tur Vritual Bulan Ini! 이번 달에는 가상 투어를 해 봅시다!

Imel : San, **kamu enggak bosan** WFH terus?
Sani : Bosan banget sih memang. Ya... gimana dong, paling aman di rumah. Sekarang aku ada hobi baru. Aku sering **ikut** tur virtual. Aku share ke kamu ya kalau ada lagi.
Imel : Mau banget, San. Itu turnya ke mana? Ke Korea?
Sani : Iya tur virtual ke Korea.
Imel : Ahahaha *ngapain* kamu jalan-jalan ke Korea?
Sani : Eh, aku kan **anak rumahan**. Enggak pernah jalan-jalan di Korea. Malah setelah ada Covid, baru tertarik keliling Korea. Tapi virtual. Hahaha

이멜 : 산, 계속 재택근무해서 지겹지 않아?
사니 : 완전 지겹기야 하지.. 뭐.어쩌겠니...집에 젤 안전하지.. 나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가상투어 자주 해. 나중에 또 있으면 너한테 공유할게.
이멜 : 와 완전 좋아. 어디로 투어가는 건데? 한국?
사니 : 어 한국으로 가상투어 가는 거야
이멜 : 아하하하 (넌 한국인이면서) 뭐하러 한국투어를 하냐?
사니 : 큭, 난 집순이잖아... 한국 여행해 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코로나 있고 나니까 한국여행에 관심이 생기던걸? 가상이나마. . . 하하하

쉬운 표현이지만 다른 단어를 넣어가면서 패턴으로 여러 문장을 알아두면 바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 ] Kamu enggak bosan + 동사구 + terus? 너 계속 ~ 하는 거 안 지겨워?
Kamu enggak bosan **makan mi** terus? 너 라면만 먹는 거 안 지겨워?
(보통 메뉴판에는 mie goreng으로 적혀 있지만 맞춤법상으로는 mi가 맞아요)
Kamu enggak bosan **ketemu pacarmu** setiap hari? 너 남친(여친) 매일 만나는 거 안 지겨워?
Kalian enggak bosan **berantem* melulu** ? 너희들 그렇게 싸우기만 하는 거 안 지겹니?
*berantem [브란뜸] 맞춤법상으로는 berantam 이라고 써요.

[2] **ikut** 쓰임새가 참 많은 단어예요.

① (무언가를) 함께 하다, 참여하다 ② 동참하다(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함께 하다)

▶mengikuti ① ~를 따라가다 (길을 쭉 따라가다,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다)

② turut belajar atau mendengarkan (kuliah dll.) 참여하여 공부하다, 수업을 듣다

③ memperhatikan baik-baik (어떤 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① **ikut tur paket** 패키지 투어에 참여하다

Tahun kemarin **saya ikut tur paket** di Eropa. 작년에 유럽 패키지 여행을 했다.

Anda mau memilih bepergian sendiri atau **mengikuti tur rombongan**?

당신은 혼자 여행하는 것과 단체여행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ikut vaksinasi/ mengikuti vaksinasi 백신접종에 참여하다 (=백신접종을 맞다)

Tidak semua WNA bisa mengikuti vaksinasi. 외국인이라고 다 백신접종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을 수 있는 특정 요건이 있다는 뜻).

★**mau ikut?** 1) (어딜 가는 경우) 나 따라갈래? 같이 갈래? 2) (어떤 활동) 같이 할래?

Aku mau ke starbucks. Mau ikut enggak? Ikut yuk! 같이 가자~(따라와~)

Dia sekarang tinggal di Australia **ikut suami** yang bekerja di sana.

그녀는 호주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다. (ikuti suami x)

★**Ikuti** jalan ini saja, Pak. 이 길을 쭉 따라서 가 주세요. (택시운전기사에게) (ikut jalan ini x)

② ikut kuliah daring 온라인 대학수업을 듣다 (kuliah 대학수업, daring =**da**lam ja**ring**an = online)

Anak saya lagi di Korea, ikut kuliah daring. 우리 애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온라인 수업 들어요.

③ mengikuti perkembangan ~ 어떤 것의 진행경과, 발전 양상 등을 계속 살피다(쭈욱 따라가다)

Saya terus mengikuti perkembangan pembahasan RUU itu.

저는 그 법안(Rancangan Undang-Undang)에 논의의 진행 경과를 쭉 지켜보고 있어요.

[3] **anak rumahan** 집순이

rumahan 이라는 단어는 rumah + {-an} 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전체가 한 단어로서 형용사로 기능하는데 '집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a. seperti keadaan di rumah)

집에 있는 아이 , 즉 집순이, 집돌이를 얘기할 때 anak rumahan 이라고 하고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집밥' 은 인니어로는 makanan rumahan (마치 집에서 만든 것 같은 밥, 집밥) 이라고 해요. makanan ala rumahan 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ala = 스타일, ~식의)

▣ 문장 통째로(1~7) 보면서 단어와 표현을 익혀 보세요.

⇒ 전체를 이으면 하나의 짧은 방송 클립이 된답니다.

[1] Pemirsa, sudah **berbulan-bulan** di rumah saja, pasti rindu liburan ya.
시청자 여러분들 몇 달째 집에만 계셔서 휴가가 정말 그리우실 텐데요. (pasti 그럴거 라고 확신)

[2] Baru-baru ini ada sebuah biro perjalanan **menggelar** tur virtual ke Korea.
근래에 한 여행사가 가상 한국투어를 진행했는데요. (menggelar 열다, 개최하다)

[3] Tur ini **disiarkan** secara *live streaming* melalui *video conference*. Katanya, para pelancong dipandu oleh seorang pemandu wisata asal Korea Selatan yang fasih berbahasa Indonesia.
이 투어는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되고요. 인도네시아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여행객들을 안내한다고 하네요.
*라이브 (생중계) 는 인도네시아어로 Langsung 이라고도 해요. TV방송 중에 상단에 Langsung 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4] (Pemandu Wisata) "Setelah **melihat-lihat** toko hanbok di depan Istana Gyeongbokgung, saya akan mengajak Anda berjalan menuju istananya.....Tempat ini pernah mengalami kehancuran tetapi sudah direnovasi"
(가이드) "경복궁 앞에 있는 한복 가게를 둘러보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경복궁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곳은(경복궁은) 훼손된 적이 있었지만(허물어진 적) 지금은 복원되었어요"

[5] "Di belakang istana, terdapat Gunung Bugaksan yang terkenal..... Hari ini sejuk dan Istana ini masih **sepi pengunjung** karena Covid."
"경복궁 뒤에는 유명한 북악산이 있고요..... 오늘 날씨가 시원해요. 경복궁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산해요.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6] "Selanjutnya kita akan **berjalan menuju** Gwanghwamun Square **yang tidak jauh dari** Istana Gyeongbokgung. Ini sperti **alun-alun** atau **ruang terbuka** bagi warga Seoul ketika mereka ingin bersantai. Di sini ada **air mancur** dan juga patung Raja Sejong yang **menciptakan huruf Korea**, Hangeul."
"자 이제는 경복궁에서 멀지 않은 광화문 광장을 향해 걸어가 볼 건데요. 광장(알룬-알룬)이나 야외 공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시민들이 편히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여기로 와요. 여기는 분수도 있고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동상도 있어요"

[7] “**Destinasi** terakhir dari tur ini adalah Sungai Cheonggyecheon. Sungai ini sering dikunjungi warga Seoul untuk bersantai, seperti jalan-jalan, **nongkrong**, jogging, atau **main air**. Sungai ini memiliki panjang hampir 11 kilometer.”
이번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는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서울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데요.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거나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조깅도 하고, 물놀이도 해요. 청계천은 11km 정도예요.

*panjang 이 때는 ‘길다’ 라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라 ‘길이’ 라는 명사로 쓰였어요.
비슷한 예로 lebar (폭이 넓다, 너비) berat (무게가 무겁다, 무게/중량) 이런 단어가 있어요.

(Sumber : IDN Tims 15 Jun 2020, “Asyiknya Tur Virtual ke Korea Selatan, Keliling Dunia Hanya dari Rumah”)

▣ 가상투어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친구와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① Covid ini kapan **berakhir** ya? 아... 이 코로나 언제 끝나지?
② **Mana mungkin** ke luar ngeri di tengah pandemi kayak gini.. 이런 팬데믹 중에 외국을 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③ Tur virtual Indonesia juga ada lho. Temanya “Surga yang tersembunyi”, katanya. 인도네시아 가상 투어도 있데이~ 테마가 ‘숨겨진 천국’ 이라는데?
(작년에 무료로 진행됐던 시골투어인데, 올해도 생기면 좋겠네요! 이런걸 이제야 알다니.....)
④ Pasti **banyak sekali** destinasi wisata di Indonesia **yang** belum banyak dikunjungi wisatasan asing.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못 가본 관광지가 정말 많이 있을 거야.
⑤ Ini kesempatan buat aku bisa mengenal lebih baik lagi tentang wisata keren di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멋진 관광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삶과 여행에 관한 명언/격언 (Kata Mutiara, Kata-kata Bijak)

*mutiara 진주 *bijak 지혜로운

☆**Berjalanlah, bukan berlari. Karena hidup adalah perjalanan, bukan pelarian.**
달리지 말고 걸어라. 삶은 달리기가 아니라 여행이니까.

☆**Jalani hidupmu dengan kompas, bukan jam.**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을 가지고 삶을 살아 나가라. (menjalani hidup)

☆**Hidup ini singkat dan dunia luas.**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다.

☆**Lebih baik melihat sesuatu sekali daripada mendengarnya seribu kali.**
백문이불여일견 (백번듣는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인니어표현은 천번이라고 했네요.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가 봐요. *A picture is worth one thousand words.*

나를 쑥쑥 키우는 인니어 질문은 여기로 ☞ nusantara817@daum.net

PUTIEN (도시락 특집)

글: 주윤지(한국컨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여러분~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지난 달 복날에 보양식 잘 챙겨드셨나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재택근무 중 점심 도시락으로 주문하기에 좋은 메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 식당은 싱가포르계 미쉐린 가이드 1스타 식당인 <PUTIEN>입니다. 미쉘린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회사인 미쉐린(Michelin)이 매년 봄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 시리즈인데요. 기존에는 '미슐랭'이라고 프랑스어로 발음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미쉐린'이라고 불립니다.

도대체 왜 타이어 회사가 식당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걸까요? 1900년 미쉐린 타이어에서 타이어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 주던 자동차 여행 안내 책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원래 미쉐린 가이드를 첫 탄생시킨 앙드레 미슐랭(Andre Michelin)은 당시 내무부 산하 지도국에 근무하여 프랑스를 여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자는 취지 아래 무료료 배포되는 여행, 식당 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는데요. 미쉐린 가이드가 미쉐린 타이어 회사 부설 여행 정보국에서 발간된 것은 앙드레 미슐랭이 에두아르 미슐랭(Edouard Michelin, 미쉐린 타이어 창업자)의 친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타이어 정보, 도로 법규, 자동차 정비요령, 주유소 위치 등이 주된 내용이었고, 식당은 그저 운전자의 허기를 달래주는 차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정보가 해가 갈수록 호평을 받아 1922년부터 유로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후 대표적인 식당 지침서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평점은 1스타부터 3스타까지 있는데요.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 3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매년 평가가 실시되어, 매년 별점이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 참고)

자~이제 본격적으로 메뉴 추천을 드려 볼까요? 우선 Bee Hoon Set(71,390루피아)를 추천합니다. Bee Hoon Set는 기본적으로 Bee Hoon(싱가포르식 쌀국수) , Ah Yuan Herbal Chicken(싱가포르식 닭백숙) 및 Pakcoy(청경채 볶음)이 제공되어, 메인 메뉴로 Set A는 Deep-fried Chicken Garlic, Set B는 Sweet and Sour Fish, Set C는 Hotplate Beef with Bell Pepper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야들야들 생선살로 만든 새콤달콤 생선탕수 메뉴인 Set B를 추천해요!
그 다음으로 Steam Rice Set(64,900루피아)입니다. Steam Rice Set는 기본적으로 밥과, Seaweed Mini Shimps(해초새우볶음), Pakcoy이 제공되어, 메인 메뉴로 Set A는 Deep-fried Chicken Garlic, Set B는 Sweet and Sour Fish, Set C는 Hotplate Beef with Bell Pepper으로 구성됩니다. Steam Rice Set에서만 제공되는 Seaweed Mini Shimps가 맛있긴 하지만, 밥보단 Bee Hoon Set를 추천합니다. Bee Hoon은 일반 면요리와 달리 텍스쳐가 가벼워 소화도 잘 되어, 배가 더부룩하지 않게 식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 도시락 외에도 국물이 땡기실 경우엔, Putien Bian Rou Soup with Vinegar(107,690루피아+)를 주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식초가 살짝 가미된 완탕면인데요. 새로운 국물 맛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입맛을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완탕피가 엄청 쫄깃쫄깃하며, 무엇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Putien Sweet&Sour Pork with Lychees(119,790루피아+)입니다. 양귀비가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과일 리치가 곁들어진 중국식 탕수육인데요. 새콤달콤하게 입맛을 돋굽니다. 도시락으로 양이 부족하실 것 같으면, 이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유익한 맛집 정보로 찾아 오겠습니다~맛있게 드세요!

<식당 정보 : PUTIEN>

음식 종류 : 싱가포르 음식(중식)
가격대 : Rp 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10:00~22:00 (변동 가능)
지점 : Grand Indonesia, Mall Kelapa Gading, PIK Avenue, Neo Soho, Living World 등

※ Google 참고

제로 이코노미

제목 : 제로 이코노미,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
저자 : 조영무 (LG경제연구원 경제 연구부문 연구위원)
출판사 : 쌤앤파커스
출판일 : 2020. 12. 16
쪽수 : 284쪽

독자가 묻고 책이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국장

제로 금리, 제로 물가 상승률, 제로 출산율…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제로 이코노미'가 시작된다!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 말은,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에도 절묘하게 들어맞는 표현이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무엇을 대비하고,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며, 방역 관련 소식과 함께 경제 뉴스가 대대적으로 소비된 한해였다. 개인도, 기업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어디를 사고,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데 '서학개미' 부터 '영끌 아파트' 까지 투자나 재테크에 이토록 관심이 커진 데 비하면 팩트에 기반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거시적 동향을 짚어주는 정보는 너무나 희소하다. 밑도 끝도 없이 뭘 사라는 재테크 유튜버들을 믿기도 불안하고, TV? 신문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단발성 분석만으로는 도대체 뭐가 뭔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대침몰인가, 대도약인가?
격랑 속 기회를 찾는 개인과 기업이 알아야 할 모든 것

LG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년간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온 국내 최고의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조영무 박사가 '제로 이코노미' 라는 파격적인 키워드를 내놓았다. '제로 이코노미' 는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런 경제 상황' 을 일컫는 말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을 능가하는 '길고 혹독한 침체' 를 의미한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경제, 정부부채 폭증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급증하는 좀비기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 경제역동성 저하, 취업 기회 를 잃어버린 '코로나 세대' 가 부른 가계 빈곤화 등이 우리 경제를 '제로 이코노미' 로 이끌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빨라지고 가까워졌다는 것이 조영무 박사의 진단이다.

"누군가에게는 전례 없는 위기가 되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상황이 온다면? 젊어서 돈 모아 나이 들어 그 돈으로 살겠다는 노후계획이 다 소용없어졌다면? 기업 10곳 중 4곳은 좀비기업이 되어 멀쩡한 기업까지 쓰러뜨리는 상황이 온다면? '소비 협곡'에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경제성장의 동력마저 바닥난다면? 코로나 이후 이러한 가정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로 이코노미'는 한국 경제가 맞이할 새로운 국면이다.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진 프레임으로 경제를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 장기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24년 '소비 협곡', 계속되는 '돈 풀기'와 '자산 인플레' 상황에서 취해야 할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의 고통스러운 선택의 순간에 선택받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미래 상황에 대해 개인과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담았다.

읽기 쉬우면서 경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제로 이코노미로 이행을 가속화시키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우리 경제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제로 이코노미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 3부에서는 다가오는 어두운 미래를 피하기 위해 찾아야 할 '우리 경제의 활로'와 가계, 기업, 정부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다루는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해당 꼭지의 후반에 '대응 포인트'들을 별도로 제시한다.

저자는 단순히 '제로 이코노미'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을 바탕으로 '제로 이코노미'를 피해가거나 '제로 이코노미'에서 생존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했다. 이 책을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묻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답하다)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의 제로 이코노미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폭증한 기업과 가계부채는 향후 빚 갚는 부담을 늘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정부부채 때문에 수년 내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급증하는 좀비기업들은 경제 역동성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고용충격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취업 기회를 잃어버린 청년층이 '코로나 세대'로 남게 되면, 그 악영향이 평생 지속되고 부모 세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산율,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금리 등 제로에 근접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묻다) 제로 이코노미(zero economy)'란?

답하다) 한국이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0명대 출산율, 0%대 경제 성장률, 0%대 물가상승률, 0%대 금리 등 지표들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 인구가 줄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쪼그라든다. 매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사라진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못한다. 초저금리 하에 예금으로는 돈 불리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이 풀린 돈이 쏠리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은 오른다. 재테크와 노후대비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휩쓸리듯이 혹은 등 떠밀리듯이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급증한다. 성장이 정체된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묻다) 한국의 제로 이코노미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다른가?

답하다) 저자는 한국 경제도 점점 '제로'로 시작하는 경제지표들이 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고 본다. 우선 원화는 엔화 같은 국제통화가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지만 엔화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으며 도리어 가치가 오른다. 우리는 일본만큼 해외에 막대한 부를 쌓아두지도 못했다.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더라도 해외에 축적해둔 막대한 자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덕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역수지 흑자 유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와 고령화 진행 속도는 이미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저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 정도만 되어도 다행이라고 보았다.

묻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수출이 늘지 않을까?

답하다) 원화 가치가 급락해도 과거처럼 수출이 크게 늘어 경기가 좋아지기 어렵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원화 가치 급락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아니라 외환위기여서 우리 수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자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더라도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위기다.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주요국들의 수요가 위축되어 우리 수출품이 다소 싸지더라도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설령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향후 상당 기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묻다) 우리나라 기업 '열 중 넷'이 좀비기업 된다고?

답하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나라 기업의 1/3은 이미 좀비기업이었고,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져 조만간 그 비중은 40%에 달할 전망이다. 좀비기업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과 이러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겹쳐져 만들어진다. 시장 원리에 따른다면 더 이상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기업에 계속해서 돈을 대주어 죽지 않게 유지하는 것. 코로나19에 대응해 정책당국은 일단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대규모 자금을 수혈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위기를 겪을 때마다 좀비기업이 급증했다. 좀비기업은 다른 정상 기업까지 좀비기업으로 만들면서 경제의 역동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다.

묻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불평등하다?

답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은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고, 그 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식당과 가게에서 종업원이 사라지고 있다. 대체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대면접촉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 임금이 낮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소득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

소득 양극화 확대는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워 그 나라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저소득층이 어려워지면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는 극단적이거나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득세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저자는 코로나19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이었던 1910년대 스페인독감 이후 유럽에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득세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코로나19 경제 충격 상황에서도 많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성 정책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질문) 기업, 개인, 정부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답하다) '대차대조표 불황'과 함께 '커다란 빚잔치'에 대비하라, 2024년 '소비협곡'이 우리 경제의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 노후대비를 '자산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중심으로 바꿔라, 향후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홈트의 세계에 빠져봅시다~

어서 와! 지금은 홈트할 시간

글: 정창훈 관장 (발리에서 Uluwatu Collective 체육관 운영 중)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LockDown(PPKM) 시행이 우리 한인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를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게을러지거나 생활패턴이 변화되면서 늘어가는 뱃살과 체중을 아래의 간단한 운동으로 해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달은 간략하게 3가지의 운동으로 효과 있게 집에서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Squat & Lunge
2	Push Up/Back & Side Kick
3	Triangle Snap Jump

운동 요령은 45초 운동 15초 휴식. 각각의 운동을 3라운드씩 진행하겠습니다.

1. 첫번째 운동 Squat & Lunge

첫번째 운동의 준비는 왼쪽의 사진과 같이 양발을 어깨너비로 펼치고 양손은 가지런히 내린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

Squat 준비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낮추고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신의 무게가 발 뒤꿈치로 가며 양 무릎은 위의 사진과 같이 발 앞꿈치를 넘지 않는다. 발란스를 잡기 위해 스쿼트 시 양 손은 사진과 같이 이마 높이로 올리면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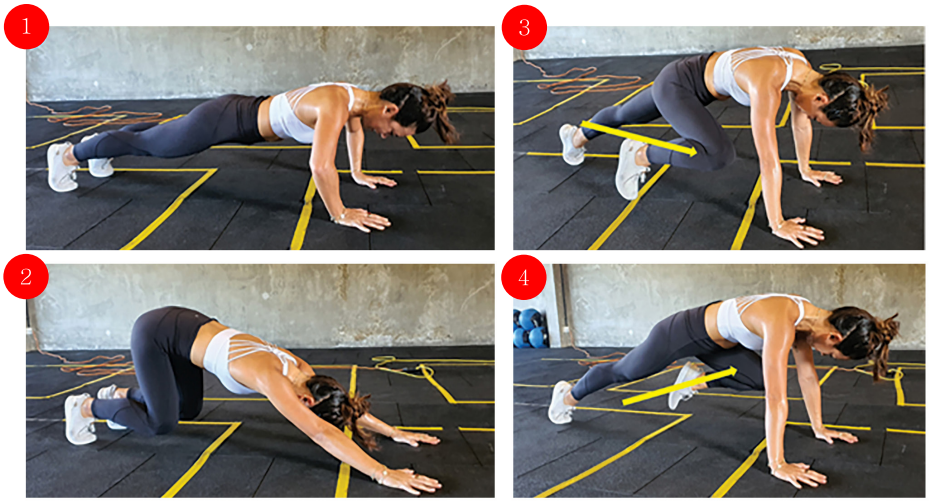
스쿼트를 1회 수행 후 아래의 사진과 같이 오른쪽 발을 뒤로 내밀면서 Lunge. 오른쪽 Lunge 이후 다시 앞으로 끌어 당긴 후 왼쪽 발 Lunge.

이렇게 45초 동안 쉬지 않고 Squat & Lunge(양쪽발)을 연속으로 수행한 후 45초가 끝나면 15초 휴식. 15초 휴식 후 다시 45초 수행. 이렇게 3라운드 수행 후 다음 운동으로 이동한다.

2. 두번째 운동 Push Up / Back & Side Kick

준비자세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Push Up 준비자세이다. 가능하면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뒤꿈치가 일치가 되도록 준비한다. 이 자세에서 운동을 수행할 경우 코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Push Up을 하더라도 코어운동과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다.

두번째 운동 요령은 아래와 같다.



Push Up 1 회 수행 후 2번 사진과 같이 엉덩이를 뒤로 옮긴 후 다시 준비자세를 취한다. 이후 3번과 4번 사진과 같이 준비동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킥하고, 왼쪽 무릎을 킥한다. 이렇게 Push Up 과 양쪽 발 킥을 반복 수행한다.

45초 운동수행, 15초 휴식 3라운드 수행한다.

3. 세번째 운동 Triangle Snap Jump

Triangle Snap Jump의 준비는 Push Up 동작과 동일하다.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가 일직선을 이룬 후 아래의 운동을 수행한다.

준비 동작에서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점프하고 다시 중앙, 중앙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점프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45초 수행 후 15초 휴식. 3라운드.

이번 달 홈트레이닝은 약 10분동안 전신운동, 특히 코어를 중점으로 운동합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운동 스케쥴 만들어서 운동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오전과 오후 2회/일씩 하면 1달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교민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PPKM 끝나고 발리 오시면 꼭 저희 Uluwatu Collective 체육관에 방문하여 함께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ID “pac1jch” 또는 전화번호 081 338 964 258 입니다.
다음달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세계
『아름다운치과』 정기천 원장

인터뷰 진행: 이영미 편집위원

유교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 홍범에서 말하는 오복(五福)과 서민들이 생각하는 오복은 조금 다르다. 천수를 누리는 장수위 복,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부한 부의 복,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복, 남에게 베풀고 도우며 선행과 덕을 쌓는 복,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일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보다 현실적인 복은 따로 있다. 치아가 좋고, 자손이 많고, 부부가 해로하며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이다. 서민들이 생각하는 오복의 첫 번째로 꼽힐 만큼 '건강한 치아'는 무병장수로 이어진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끼는 시간이 길어지며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인뉴스》는 『아름다운치과, Aritaum Clinic』 정기천 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눴다.

Q. <프로가 들려주는 생생Tip>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치과』 치의학 박사 정기천입니다.

Q. 어떤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에 충실하듯, 저도 치과의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치료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눈길이 가더군요. 나를 위한 진료에서 벗어나 여유를 갖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8년간 서울구치소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외국에서의 봉사의 삶도 살고 싶었습니다. 발전 가능성을 보고 동남아의 여러 나라 중 인도네시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치과의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람답게 사는 법'은 각자의 꿈과 희망 속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소, 교육 방식, 삶에 대한 자세와 꿈도 다르듯 인간의 삶에는 정답도 쉬운 방법도 자로 잰 듯 똑같은 길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듯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이루는 성취와 만족도도 차이 나듯 치과의사의 삶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누가 더 '현재'에 만족하며 즐겁게 일하는가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반복되는 편한 삶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자신의 영역 밖의 새로운 삶을 꿈꾸듯 저도 한국에서의 치과의사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의 경험이 대단히 만족스러울지, 잃어버린 시간이 될지는 저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 달려있겠지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통하기 마련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사랑을 전하고 여운이 있는 삶이 되고자 노력할 뿐입니다.

Q.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고 '가지 않은 길'은 항상 더 나아 보이는 법입니다. 치과의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치과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출처: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 2권)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치과의사가 되려면 치과대학에 진학하거나(경북대, 경희대, 연세대, 전북대, 조선대, 원광대, 강릉원주대, 단국대) 치의학 전문대학원(부산대, 서울대, 전남대)에 전학하는 길이 있습니다. 치과대학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처럼 입시절차로 진행되며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경희대, 전북대, 조선대, 연세대에서 2005년 처음 시행되어 오다 현재는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3개 국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DEET(Dent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공통으로 보게 됩니다. 대학마다 입학 요강에 따라 반영하고 요구하는 학부 학점, 공인 영어 성적, 관련 서류와 면접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이 시대의 생존 키워드로 꼽히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10개나 되는 치과전문의 분야(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악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에서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과도 여러 전문 분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 전문 분야는 크게 따지지 않지만, 중증의 진료에서는 아무래도 전문 분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치과의 전문 분야로는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치주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통합치의학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등이 있습니다. 가끔 임플란트전문과는 없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임플란트는 치과 일반진료에 속하므로 임플란트과는 없습니다. 인기 있는 과를 물으신다면 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Q. '202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면허 치과의사 수는 총 3만1640명. 남성이 2만2941명(72.5%), 여성이 8699명(27.5%)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인사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역이 치과의사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여성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한의사와 달리 치과 여의사 증가세가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에는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여성들이 각 분야에 많이 진출하듯 의료계에도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여치과의사들의 수도 80~90년대 10% 수준에서 이제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치과 쪽 여성 인력이 60% 이상으로 특히 여성 인력의 비율이 높습니다.

Q. 어떤 직종이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 관리해야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심신 관리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은 '백세시대' 입니다. 의료의 발달로 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100세를 사는 시대의 첫째 조건은 '건강' 입니다. 건강관리의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습관입니다.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직업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정 시간이 없다면 출퇴근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내리기, 집안 청소나 주말 운동를 권합니다. 대안책은 많습니다. 실천이 어려울 뿐! 저 또한 실생활에서 가능한 몸을 움직이려 노력합니다. 균형 잡인 영양 섭취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은퇴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삶이 허락하는 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며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차분히 먼 산의 경치를 살피는 소소한 순간이 제 삶의 '등대 같은 시간' 입니다. 건강은 인생의 최고의 보물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계신 모든 한인 분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Q. 끝으로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뉴스》 독자들에게!

우리는 어머니 몸 같은 조국을 타의든 자의든 떠나서 인도네시아라는 이국땅에서 맡은 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편할 일들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전쟁하듯 살아갑니다. 현지인들을 동료로 존중하고 보살펴도 실망한 경험도 있을 것이지만, 쉬이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한국의 대표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회 www.ikcs.kr
한인니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KIFC KOREA INDONESIA FOREST CENTER
한-인니 산림센터
10th Anniversary

제11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1년과 한-인니산림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2010년 첫 씨앗을 뿌린 뒤 여러분들의 관심과 언어 한 줌으로 키운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공모전이 제11회를 맞이합니다. 한인니문화연구원이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문학상으로,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과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한-인니산림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공모 부문은 △소설 △수필 △시/시조 △동화/동시로 한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국어로 직조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 주제 :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야기> (예: 해외 거주, 나무, 숲, 팬데믹 등)**
■ **공모 대상 : 학생부 (중·고등학생) 및 일반부 (대학생·성인)**
※ 성인부 대상(혹은 최우수상)은 한국문예지에 등단 기회 부여
■ **접수 방법 : 2021년 08.01(일) ~ 09.15(화) 18:00 마감**
-이메일 접수 ikcskr@gmail.com과 indonesiastory@hotmail.com
동시 송부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학년 표기)
-한글 파일, 산문 A4 3쪽~5쪽 / 운문 2편 (맑은고딕 10p, 행간 160%)
-순수 창작물 (발표되었거나 표절 작품은 당선 취소)
■ **시상식 및 문화행사 : 10월 예정, 생태교육모델숲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 **시상 내용 : 인원 미정 / 상장 및 상금**

구분	상명 (학생부 및 일반부)
대상	주인니대한민국대사상, 주ASEAN 대한민국대표부대사상
최우수상	재인니한인회장상, 재인니상공회의소회장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한-인니산림센터장상
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KOICA소장상, PT. TAEWON INDONESIA상, 인문창작클럽회장상
특별상	Lembaga Kebudayaan Betawi상, 인니갤러리 Widayanto상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상, 인니 예술가상
장려상	한인니문화연구원상, 한-인니산림센터상

※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를 주제로 한 뛰어난 작품은 한인회장상에 중복시상 됨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시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문의처 :** 0815 1901 0570 lilac40004@gmail.com
0812 8642 3992 cine0301@hanmail.net

초등부

제1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공모

구분	상명
대상	한-인니산림센터장상
최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우수상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 초등부는 인도네시아의 숲과 나무, 환경과 생태에 관한 모든 이야기(체험 수기, 동화, 동시 등)를 2021mothernature@gmail.com로 접수

☞ 인원 및 시상내역 미정

☞ 문의처: 081 111 7230 / 2021mothernature@gmail.com

illustration of Sentul Eco Edu Tourism Forest

접수기간

2021.8.1.(일) ~ 9.15.(수) 18시

■ 후원: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아름다운 공동체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PT. TAEWON INDONESIA

한인상공회의소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유은규 (JIKS 교사)

가자마다의 빨라빠 맹세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랫동안 민족 국가를 형성해 왔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우리는 한 민족 한 국가라고 생각해 왔다. 생활 영역도 한반도라는 다소 협소한 공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약 300여 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대륙이나 섬이 아니라 대양으로 연결된 크고 작은 18,000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부터 이 공간과 종족이 '인도네시아' 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묶여진 것일까?

인도네시아 역사가들은 그 대답을 마자파힛 왕국(1293~1527)에서 찾는다. 마자파힛 왕국의 영역은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영역을 포함하여 말라카 해협 동쪽 해안 지역과 필리핀 남부까지 아우른다. 자와와 수마트라를 넘어서는 이 거대한 영역을 처음으로 하나의 통치권 속에 넣은 왕국이 마자파힛 왕국이다. 그렇지만 마자파힛 왕국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 유적은 너무 빈약하다. 수도인 뜨로울란(Trowulan)에도 탑이나 건축물의 일부 몇 개만 남아 있다. 그 와중에 마자파힛의 재상이었던 가자마다(Gajah Mada)는 오늘날까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족자카르타에 처음 세운 국립대학교에 이 명재상의 이름을 붙여 기념하고 있을 정도이다.

Gapura Bajang Ratu
(Trowulan의 마자파힛 왕국의 유적)

(https://id.wikipedia.org/wiki/Gapura_Bajang_Ratu)

마자파힛의 2대 왕이었던 자야느가라(Jayanegara) 통치 시기에 꾸띠(Kuti)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때 왕은 가자마다가 지휘하는 군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반란의 와중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수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 가자마다는 자야느가라의 여동생 뜨리부와나, 또 그 아들 하얌 우룩 때까지 재상으로 마자파힛의 번영을 이끌었다.

가자마다의 일생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빨라빠 맹세(Sumpah Palapa)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맹세이다. 빨라빠 맹세는 마자파힛의 재상인 가자마다가 현재 인도네시아를 구성하는 여러 주변 지역들(발리, 순다, 팔렘방, 싱가포르 지역까지 포함)을 모두 마자파힛의 지배 영역으로 포함시킬 때까지 어떤 향료도 맛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말한다[1]. 빨라빠(palapa)는 pala(육두구) apa 의 합성어로 이해되어 모든 향신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런데 빨라빠를 먹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가자마다가 이 세상의 안락함과 희락을 절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는 종교적 의미가 추가되기도 한다. 더 극단적으로는 심지어 가자마다가 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할 때까지 금식을 단행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 빨라빠 맹세라는 것이 만들어진 맥락과 문맥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빨라빠 맹세를 읽으면서 '와신상담(臥薪嘗膽)' 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싸우던 시기, 이전의 치욕을 기억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부차는 장작더미 위에서 자고 구천은 곰의 쓸개를 맛보며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이 고사처럼 가자마다도 조국 마자파힛을 위해 뜻한 바를 이루려고 향신료가 없는 무미건조한 음식을 먹으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가자마다가 맹세한 대로 강력한 해군 함대를 동원하여 해양 정복 활동을 벌인 결과 하얌 우룩(Hayam Wuruk) 시대에 마자파힛 왕국은 현재의 인도네시아 지역 외에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부, 브루나이, 그리고 필리핀 남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해상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가자마다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맹세가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다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쟁취할 때 즈음이다. 사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종족과 영역을 필연적으로 하나로 묶어야 하는 역사적인 공동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수카르노(Sukarno)와 야민(M. Yamin) 등 민족주의자들이 발견해 낸 인물이 바로 가자마다였고, 이 빨라빠 맹세는 매우 쓰임새 있는 맹세였던 것이다.

---

1) 빨라빠(palapa)는 pala(육두구) apa 의 합성어로 이해되어 모든 향신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가자마다가 마치 '인도네시아 민족' 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를 선포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카르노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이 역사적 의무를 다시 실행하는 것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대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가자마다는 매우 영광스러운 인물로 다시 부각되었다.

그러면 과연 가자마다가 그 시대에 이런 맹세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가자마다는 자기가 정복하려고 했던 영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는 역사적 비전을 갖고 있었는가?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들이 하나의 정치 단위로 생각된 적이 있었는가? 이전에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로 전혀 인식되지 않던 지역들을 모두 하나로 아울러야 되겠다는 이 맹세는 주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여 지배하고자 하는 확장적, 제국주의적인 군사 활동을 고무시키려는 캠페인에 불과하다. 아마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재상으로서 이런 맹세를 했다는 것이 큰 자극이 되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가자마다 재상이 오랜 정복 기간 동안 이 맹세를 지켜 무미건조한 음식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맹세를 했다는 자체가 현재 가자마다를 재소환한 사람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Ilustrasi Gajah Mada

단지 고대의 정복적인 영웅이었던 가자마다가 현대 인도네시아의 건국의 비전을 제공한 인물로 재부각된 것처럼 과거의 역사적 인물은 현재 상황에 맞게 수시로 재소환된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연상되는 플래카드가 등장하여 일본인들의 심기를 확 뒤집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이다.

도전하니 청춘이다

따뜻한 감성으로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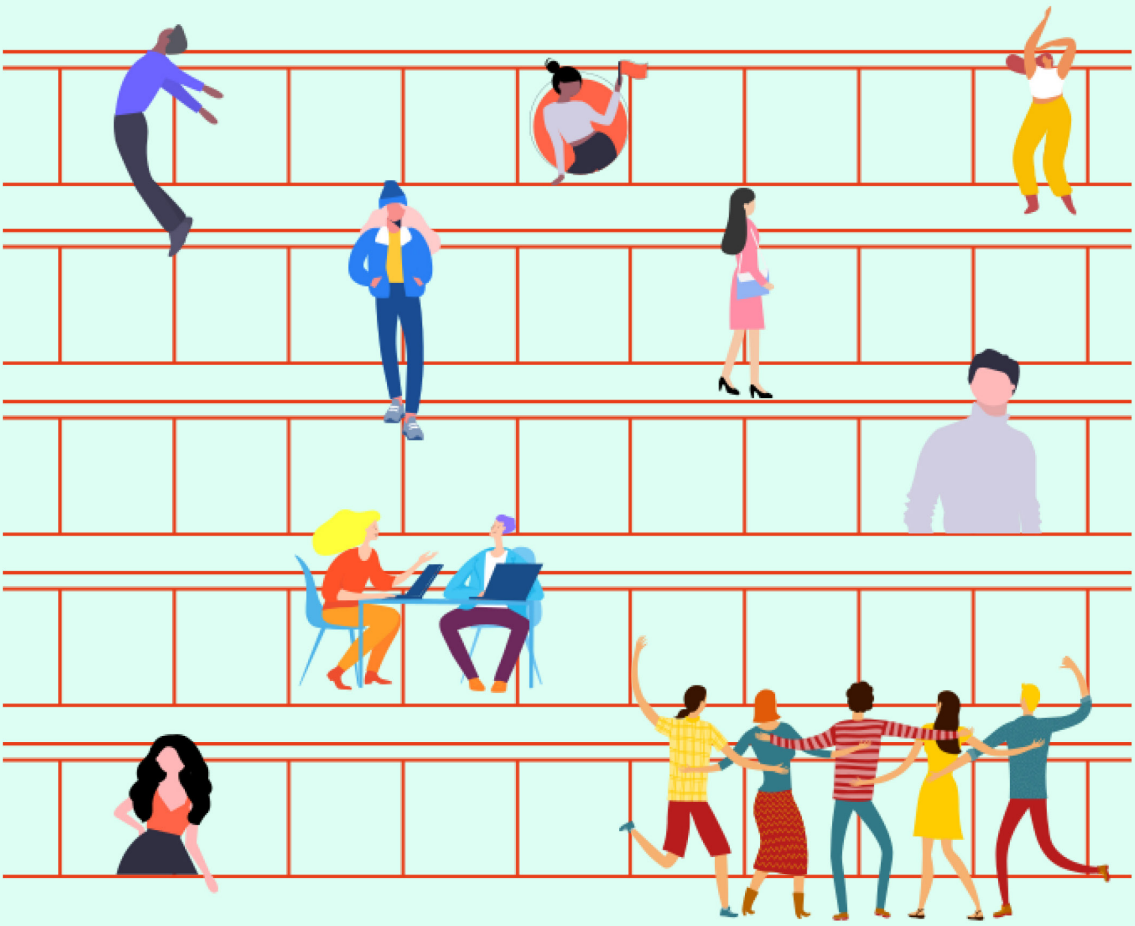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1년 6월 1일~ 8월 3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끝나지 않은 잔혹사 그리고 '역사' 박물관 이야기

바타비아 시절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벽화가 있는 방
사진 : 자카르타역사연구팀

자카르타역사연구팀장 조은아 (한인니문화연구원)

옛 자카르타, 즉 바타비아 역사의 중심에는 '파타힐라 광장' 이 있고 그 중심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 이 역사 박물관은 본래 시청의 용도로 지어졌으며, 시청의 역할 뿐 아니라 치안 법원, 사법 재판소, 교도소 등의 역할도 병행되었음을 지난 번 칼럼에 소개하였다. (자카르타역사연구팀 12, 15번째 칼럼 참조)

'바타비아 시청' 은 1970년 문화재 건물로 지정되고,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알리 사디킨(Ali Sadikin(1966~1977) ; 자카르타 최장기 주지사)에 의해 시청 건물의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1974년 3월 30일,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 (Museum Sejarah Jakarta)' 로 개관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시청은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였는데, 그에 관한 에피소드 또한 무궁무진하다.

잔혹한 지배 세력의 발코니

사법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그 즈음, 시청은 늘 고통의 신음소리와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다.

1670년경, 발리인 무사 운뚱 수로파티(Untung Suropati) 또한 이 무시무시한 시청 감옥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한 몇 안 되는 수감자 중 한 사람이었다. 수로파티는 주인의 학대를 못이겨 반란을 일으키고 투옥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Abdul Muis(1950)' 에 따르면 수로파티는 군 장교인 주인의 딸 수산나 무어(Soesanna Moor)와 사랑에 빠진다. 노예였지만 지혜롭고 부지런했던 수로파티는 주인을 도와 많은 일을 성공시켜 크나큰 수익을 얻게 해준다. 주인 장교는 그를 신임하여 운뚱(Untung

행운)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준다. 그러나 노예는 주인의 딸인 수산나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분노한 주인은 그를 시청 감옥에 가둔다. 그곳에서 탈출한 수로파티는 함께 도망친 노예들과 조직을 꾸려 VOC 군대를 공격하고, 이는 차후 자바인들과 함께 치열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밑걸음이 된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산 수산나는 노예를 사랑한 죄로 이후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는다.

1732년 스리랑카의 전 네덜란드 총독 '페트루스 푸이스트(Petrus Vuyst)' 역시 이 감옥에 수감되었었는데 그는 발가벗긴 채 의자에 묶여 목을 잘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살인 마니아로 불릴 만큼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악행으로 수감되었다.
또한 자바 전쟁(혹은 디포네고로 전쟁)의 패배로 네덜란드 군에 체포된 디포네고로 왕자도 이곳의 수감자였다. 1830년 중부 자바의 마글랑(Magelang)에서 잡혀 바타비아로 끌려온 그는 마나도(Manado)로 추방되기 전까지 시청 건물에서 갇혀있었다.
칼, 교수형 혹은 원시적인 단두대와 같은 도구들로 치러지는 사형은 매달 시청 앞에서 정해진 날 집행되었다. 판사들은 모두 휘장과 예복을 갖추고 사형 집행을 목도하기 위해 발코니에 자리잡는다. 육중한 문과 나무 기둥으로 막아놓은 창문들, 그리고 단단한 칸막이들이 중앙에 위치한 홀들과 2층의 발코니를 구분 짓고 있다. 이러한 보호 장벽과 특별 경비는 화가 난 군중들과 부당함에 대한 반발심으로부터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였다. 이 발코니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향하면, 한때 바타비아 성이 위치했던 곳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명당자리이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은 시청 뒷마당에서 발표되었는데, 수감자들은 형을 받고 시청 중앙건물 입구 앞 작은 광장인 '스타드후이스플레인(Stadhuisplein)'으로 옮겨진다. 만일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라면 그 전 날밤 이곳으로 옮겨지고 다음날 아침 시청의 팔각형 탑 꼭대기에 있는 종이 울리기를 기다린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느님께 영광) 이라고 쓰여진 이 종은 1742년에 만들어 졌는데, 아직도 그대로 종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선고를 받은 자들은 흰 옷을 입은 채 법정에 들어와서 신분을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울리면 죄인들은 광장으로 끌려 나온다. 그리고 판사들은 발코니에 착석하고 종은 다시 한번 더 울린다. 세 번째 종은 사형 집행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18세기 시청에서의 종소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은 바타비아의 노예들이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지배자들의 잣대는 노예층에게 더 혹독했고, 바타비아의 가장 많은 인구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는 대부분은 그들이었다.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으로는 죄인을 여러 날 꼬챙이로 찌르며 고문하여 결국 감염으로 죽게 하거나, 그 고문으로 살상욕(殺傷慾)을 수반한 심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땅에 묶어 두고 커다란 바퀴를 몸 위로 굴려 죽게 하였다고 한다. 이 모든 형벌들과 고문들은 현재 Jl. Tonkol의 유료 고가도로, 북쪽의 성 앞의 '교수대 광장' 혹은 시청 앞의 고요한 광장에서 행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청 앞 광장 또한 지금의 어느 나라 시청 앞처럼 공공시장과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축제의 장소이기도 했다.
또 깨끗한 식수를 길어가던 곳이기도 했는데, 본 임호프 (Von Imhoff) 총독의 재임시절만 해도 찔리웅강에서 벽돌로 만든 지하 파이프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했다고 한다. 광장의 중앙에는 1743년에 세워진 팔각형의 작은 분수(Patung air mancur)가 서 있는데 19세기에 허물어졌다가 1973년 다시 세워 2006년까지 지속적인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시청은 1974년 역사 박물관으로 거듭나기까지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도 충실했다.
1620년에서 1815년까지 바타비아의 민병대 혹은 시민군(Schutterij)의 본부로 사용되었다. 민병대의 총독은 사법부의 총책임자였다. 민병대는 네덜란드인 사무직과 바타비아 시민들, 마르디커스(Mardijkers:노예신분에서 풀려난 바타비아인들의 집단), 그리고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동인도 회사들도 참여했다. 시청 앞 광장은 이들의 훈련장이었는데, 조금 느슨한 군대였다고 기록된다. 민병대의 각 소대는 야간에 시청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경비를 섰고, 다가오는 이들에게 몽둥이질을 했다고도 한다.

바타비아, 끝나지 않은 역사 속으로

1799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VOC)의 파산 후, 바타비아 행정부를 네덜란드 정부가 넘겨받기까지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바타비아의 영국 임시정부(1811~1816)의 종식도 1816년 8월 이곳에서 이뤄진다.
1905년과 1913년 사이에 시의회는 시청에서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고, 1925년에는 서부 자바 지방정부가 들어서 2차 세계 대전 발발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바타비아 시 행정부는 1913년 시청사를 떠나, 따나 아방(Tanah Abang Barat(현재 Jalan Abdul Muis, Pusat Jakarta)으로 이전되었고, 1919년에 다시 현재의 Jl. Medan Merdeka Selatan, Pusat Jakarta에 복층 건물로 지어져 현재까지로 이어진다.
2차 세계대전 중 시청은 역시 일본군이 점령하여 군 사무실과 일본 물류 집결소로 사용되었다. 2차 대전의 종전으로 일본이 물러가고 네덜란드로부터도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이 건물을 1961년까지 도시군 사령부 본부로 사용하면서 서부 자바 지방 정부의 역할도 함께 했다.
그리고 1970년 바타비아 구 시청은 문화재 건물로 지정되었다.

1710년, 세 번째 시청으로 완공되어 바타비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시청이 1974년 역사 박물관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약 264년 동안 자카르타 역사박물관은 침략과 전쟁, 점령한 자와 점령당한 자들의 피와 땀, 눈물 등 수 많은 역사의 산실이다. 이곳 저곳에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미비하고 아직 정비되어야 할 것도 많다. 하지만 자카르타 역사 박물관은 단순히 바타비아 시대의 유물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지역의 선사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1628년의 바타비아 모습 - 자카르타역사박물관 소장품

역사박물관에서 화려한 색채의 그림이 방 전체를 가득 채운 곳이 있다. 바로 서쪽 건물 중앙홀. 바타비아 VOC 시절의 서양식 성대한 파티 모습이다. 멋지게 차려 입은 백인의 점령자들은 테이블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만찬을 즐기고 그 사이로 심부름을 하는 동양인 노예들이 보인다.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는 노랑과 빨강 등의 밝은 색감으로 벽 전체를 장식한 듯 보이지만 어두운 노예들의 표정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스탠딩 배너를 통해 VOC의 주요 인물 소개도 볼 수 있다.

건축 당시의 암스테르담 시청과 자카르타역사박물관 비교 사진 - 자카르타역사박물관 소장품

자카르타역사박물관은 건축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청사(현 네덜란드 왕궁)를 본따 건축되었다. 그들은 풍족한 열대 자원의 땅에 자신들의 또 다른 왕국을 꿈꿨다.

자카르타역사박물관의 정면에 서본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휘날리는 자카르타역사박물관 정면 상인방에는 아직도 310여년 전 새겨진 Gouverneurs Kantoor(네덜란드어 '총독부')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들은 여전히 열대의 유럽을 꿈꾸고 있을까?

자카르타역사박물관 정면에 남아있는 Gouverneurs Kantoor(총독부)라 새겨진 글씨 - 사진 : 자카르타역사연구팀

감수 : 사공경

참고문헌
〔Historical sites of Jakarta〕 A.Heuken SJ ,
〔Jakarta sejarah 400 tahun〕 Susan Blackburn,
〔Kehidupan Sosial di Batavia〕 Jean Gelman Taylor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 사공경(2005)

대항해 시대

하승창 / 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원
goldragooo@gmail.com

"목숨이 아깝거든 돈과 적하를 놓고 썩 꺼져! 안 그러면 뜨끔한 맛을 보게 될걸?"
사오십 대의 '아재'들 중에는 아마 이 멘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학교 3학년 시절, 나의 방과 후 시간을 오롯이 잡아먹었던 한 고전 명작게임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대항해시대 II' 였다. 동명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게임에서, 나는 상인이 되어 해상 무역을 하거나 해군 또는 해적이 되어 전투를 벌이고, 모험가가 되어 보물을 찾아 다녔다. 내 몸은 비록 작은 방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만은 온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당시 선원들의 현실은 결코 게임에서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좁은 배 안에서 엄격한 규율에 시달리며 쉴 새 없이 중노동을 해야 했고, 위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돌처럼 딱딱한 비스킷과 썩은 물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괴혈병과 폭풍우, 해적과의 조우 등으로 목숨을 잃은 선원들도 부지기수였다.

나는 군함을 타 본 적이 있다. 군 시절 대대 급 상륙훈련 때였는데, 상륙함을 타고 연안을 사흘간 항해하다 상륙 후 기동하는 훈련이었다. 승선 첫날은 행복했다. 과업도 없고 집합도 없는데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식사 메뉴였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 푸짐한 반찬과 고깃국, 부식으로 나오는 각종 음료와 포도 통조림에 경악한 우리는 '상륙군 식사 15분 전' 구호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이틀째가 되자 좀이 쑤시기 시작한 것이다. "뻘 밭에 굴러도 바깥이 낫겠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도에 울렁이는 배 안에서 종일 갑갑함을 견디는 것은 고역이었다. 편하게 지낸 사흘도 이럴진대, 중노동에 시달리며 수개월을 보내야 했던 옛 선원들의 삶이야 말해 무엇하랴. 바야흐로 인류 역사상 두 번째의 대항해시대가 열리고 있다. 금과 향신료를 찾아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던 개척자들은, 이제 '4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의 확보와 식민지 개발을 위해 우주로 진출하고 있다. '1차 대항해시대'의 결과가 그러했듯 '2차 대항해시대'를 주도하는 집단이 향후 세계 패권을 쥘 것이기에, 지금 우주 진출을 위한 경쟁은 더없이 치열하다. 주요국 정부와 기업들은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테마에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내연기관이 갖는 한계는 전기차로 극복할 것이고, 도시는 수소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 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우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최근 아마존의 CEO 에서 물러난 '제프 베이조스'는 이달 20일에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을 개시한다. 우주여행이 대중화되는 데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헨리 포드가 처음 만든 자동차는 기차보다 생산단가가 높았고, 초창기 모토로라의 '벽돌' 핸드폰은 사회 최상류층만의 사치품이 아니었던가. 기술 발전은 가속한다. 불과 5년 전 '이세돌'에게 압승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알파고'는 강화학습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이미 퇴물이 된 지 오래다.

제공: 버진 갤럭틱 비행 성공/경향신문

갑갑한 시절이다. 코로나로 더욱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고역은 마치 상륙함에 탔던 때를 떠오르게 한다. 하긴 1년이 넘게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단다. 미팅은 화상으로, 친구는 메신저로, 공부는 유튜브로, 여가는 넷플릭스로. 이런 사람들은 몸이 지구에 있건 화성에 있건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물론 행성 간 인터넷이 짱짱하게 터져 줘야 하겠지만. 재활용 로켓을 '조자룡 헌 창 쓰듯' 쏘아 올리며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백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가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는 화성을 마치 해외여행 다니듯 오갈 날을 상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마치 백년 전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을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상상할 수 없었듯이. 궁금하다. 2050년도의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삐-삐-삐-' 경보음이 울린다. "섹터 11 에 해적 출현! 11 에 적 출현! 교전하겠음!" 스피커를 타고 나오는 외침. "모기 같은 놈들, 역시 11로 왔군."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경비대장을 쳐다본다. 화성과 지구를 오가며 부동산을 개발하는 나는 최근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화성 북반구 택지의 일부, 11번에서 20번까지의 구역을 할당받아 주택 단지와 인공 하천을 조성하고 있다. 모기가 없어 쾌적한 이곳에도 성가신 존재들이 있으니, 바로 '우주 해적'이라 불리는 무법자들이다. 이들은 작은 우주선을 타고 다니며 수송선의 화물을 털어 먹고사는데, 신도시 건설 붐이 일자 수시로 개발 지역에 출몰해서 건축 자재를 강탈해 가고 있다. 지구에서 일을 보고 있던 나는 우리 구역의 조경공사에 쓸 진귀한 나무들이 통째로 탈취 당했다는 소식에 급히 화성으로 돌아왔다. 한 일주일 걸렸나? 우주선 안에서 업무 지시는 끝내 놓았다. 어제 도착한 고가의 3D 프린팅 건설장비가 11 구역에 배치된다는 정보를 흘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장비는 없다. 중무장한 경비대 최정예 병력이 매복해 있을 뿐.

치안이 안정된 구도심에 비해 여기는 아직 방위군의 증원이 늦어서, 개발업자들은 사설 경비대

를 고용해 지역의 치안을 보강했다. 경비본부에서 대기 중인 나는 이제 적들을 일망타진했다는 소식만 기다리면 된다. "어?" 모니터를 보던 경비대장의 얼굴이 굳는다. "18 구역에 함선이 하나 접근 중입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장비는 18 구역에 있다. '설마, 11 구역을 친 것은 미끼였나?' 차가운 손이 얼굴을 거꾸로 쓸어 올린 느낌이다. "섹터 18 에 다수의 적병 출현! 지원바람! 섹터 18 지원바람!" 경보음과 함께 귀를 때리는 다급한 목소리. '아뿔싸!' 호통치는 경비대장, 무장하는 대원들, 본부는 벌집을 쑤신 듯 분주하다. 불현듯 이십 대 시절에 자주 했던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이 생각난다. '예전에 임요환이 이런 전술을 자주 썼는데.'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그래, 이래야 재미가 있지.' 일흔 먹은 몸에 다시 피가 끓고, 전신의 세포는 약동하기 시작한다. "어이, 나도 총 하나 줘!" 방탄복 버클을 채우다가 고개를 갸웃한다. '가만, 그런데 18 구역에 장비가 있다는 걸 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내부에 쥐새끼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개...' 터져 나오려는 욕을 삼킨다. 부동심의 경지를 위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연마해 왔던가. "18! 18 구역이다! 가자!" 대원들에게 소리치며 헬멧을 눌러쓰고, 총을 받아들고 뛰어 나가는 노병의 귀에 '스타크래프트' 의 함성이 아련히 들려온다.

"You wanna piece of me, boy? Go Go Go~!!!"

메타버스에 탑승하실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도 벅차다. '있다고 치고' 라는 전제가 영 석연치 않다. 난 그렇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비추어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다음을 예견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확실하다는 것에 허탈하고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다.
명칭부터가 무리가 있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실체가 없다는 불안감에 수용이 어렵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로 비대면 진행이 일상인 디지털 지구에서 난 아직 어리둥절해 하는 중이다.
상상이나 공상은 시간낭비라고 여기는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낯을 가리지 않는 나의 분신이 다른 이의 아바타와 교류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다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변화와의 상관관계가 점점 줄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를 연결는 과정의 속도감이 불편하다.
우리의 노력은 지금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이나 새로운 영역은 여전히 두려운 세계다.
메타버스가 그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 차량이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 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따위처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

<메타버스의 종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세계
실제 존재하는 세계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 등을 합성하는 기법으로 포켓몬고 게임을 떠올릴 수 있다.

라이프 로깅 (Lifelogging)세계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해당 SNS 블로그 활동이 해당한다.

거울 (Mirror)세계
실제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 구조 등을 복사해 만들어낸 것.
음식배달 앱이나 구글어스 등 현실세계의 음식메뉴를 주문하고 지도 등을 활용하는 것.

가상 (Virtual)세계
가상세계는 단어그대로 현실과 다른 공간이다.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의 입학식, 미국의 조 바이든대통령 선거운동이 예이다.
메타버스의 가치는 그 자체가 세계이기에 그 안에서 놀이뿐 아니라 생산이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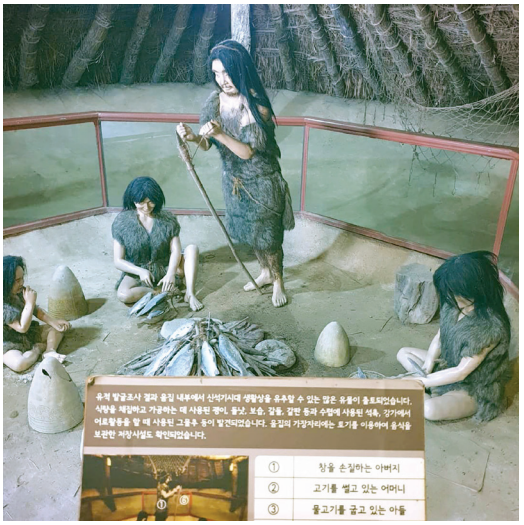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sunsky27/222398850371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니?" 라고 묻고 싶은 입을 닫는다. 답답한 것은 아이보다 어른일지도 모른다.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가짜가 아니듯 가상의 것에도 내용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글: 홍석영 편집장)

타임머신 대신 지하철 타고 암사선사유적지로!

김재이(Sinarmas World Academy, G9)



"엄마, 삼복더위가 '너무 더워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지낸다'는 뜻인지는 아시죠?"

"알다마다! 그렇다고 더위에 세 번 굴복할 생각은 없어. 우린, 더위를 이겨낼 생각이야."

불안하다. 한쪽 입꼬리를 올리는 엄마의 저 웃음. 배낭 속에 전날 얼린 보리차와 주스를 챙긴 엄마가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쳤다.

"자 출발!"

음력 6월과 7월 사이에 10일 간격으로 숨어 있는 삼복. 게임으로 치면 보스몹 정도가 아닐까. 올해에는 7월 11일과 21일, 8월 10일이 삼복이다. 초복과 말복의 중간에 끼인 중복에 엄마는 '암사선사유적지' 답사 계획을 세우셨다. 엄마가 쓰는 동화책의 시대 배경이 선사시대라나 뭐라나. 제목을 슬쩍 공개하자면 '선사시대 래퍼'. 글을 쓰다 노트북 앞에서 "우가우가 내가내가 네가네가 우리가우리가, 요~"를 중얼대는 엄마를 보면 엄마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든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도착한 암사선사유적지. 정확한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875이다. 먼저 거대한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등재 기원 소망 움집이 우리를 반긴다. 검색해 보니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 2019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나도 4421번째로 서명에 동참했다. 인증은 필수!

유적지 초입의 매표소에서 표를 받아 드디어 입장.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열 걸음도 걷지 않아 앉고 싶었다. 목풍기는 바라지도 않으니 손풍기라도 있었으면.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는 게 입밖으로 내뱉었다.

"더워?"

씩씩하게 앞서 걷던 엄마가 휙 돌아보았다. 동생과 나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만 따라와~"

유적지 화장실로 우리를 데려간 엄마는 물티슈 네 장을 뽑아 새끼줄처럼 엮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나, 둘. 그렇게 엮은 물티슈 새끼줄에 물을 묻혀 나와 동생의 목에 걸어주었다.

"시원하지?"

인정하기 싫었지만 정말 시원했다. 동생과 나의 얼굴은 물 먹은 하마처럼 금세 활짝 펴졌다. 코로나와 더위로 유적지에는 우리 셋뿐이었다. 움집으로 가는 길은 온통 토끼풀 천지였다.

"어, 토끼풀이다. 나 때는 말이야,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소나무가 즐비한 솔밭에는 매미울음이 가득했다. 7년을 땅속으로 기다린 매미울음은 엄마의 '라떼는 말이야'를 삼켜버릴 만큼 우렁찼다. 그때였다. 내 하얀 운동화 앞코에 기댄 행운을 발견한 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네잎클로버였다. (감동도 잠시, 나와 동생은 엄마의 미션에 의해 각각 7개의 네잎클로버를 찾아냈다.)

움집까지 가는 동안 엄마는 돌침대에서 자는 선사시대 아이의 모습이 궁금하다며 동생에게 편평한 돌 위에 누워보라고 부탁했다. 움직임이 날쌘 개미들이 기어 다니는 돌 위에서 못하겠다는 동생과 한 번만 해보라는 엄마를 보며 나는 중학생이란 사실에 감사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역사책이나 인터넷에서나 보던 움집들을 체험하는 '체험형 움집'. 움집 한가운데 모닥불 둘레에 모여 식사를 하는 선사시대 가족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채집과 수렵으로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신석기시대인들. 강가에서 물놀이하다가도 물고기를 잡고, 목숨을 건 사냥을 하는 모든 이유는 '가족'이었겠지.

"애들아, 오늘 어땠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엄마가 물었다. 드디어, 별점 타임! 우리 엄마는 하루를 다섯 개의 별점으로 매긴다. 무언가를 성취한 날, 새로운 도전을 한 날, 그럭저럭 열심히 산 날, 하릴없이 시간을 보낸 날, 반성해야 하는 날. 뭐, 이런 식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재빨리 '기회비용'을 계산했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한 날'이다. 집에 있었으면 공부를 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책상에 앉아 나긋나긋 졸았을 테니.

"엄마, 더운 날 체험 학습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늘은 별점 4점!"

나는 부채처럼 손가락 네 개를 펼쳤다. 엄마는 만족한 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눈치 빠르게 팔꿈치로 동생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옆에 앉아있던 동생이 앵무새처럼 내 말을 따라 했다. 땀에 전 동생의 머리칼이 그림처럼 이마 위로 늘어져 있다. 나는 손을 뻗어 동생의 앞머리를 쓸어넘겨 주었다. 다리가 조금 아팠지만 진짜 진짜 재미있었다는 동생의 눈에 졸음이 가득했다. 나는 넓적 큰뿔사슴 가죽옷을 입은 동생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풋, 선사시대에 태어났어도 내 동생은 개미가 무섭다고 울상을 지었겠지.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움집 같은 곳에 살게 된다."는 엄마의 협박과 "열공할게요~" 제비처럼 입을 모아 말하는 동생과 나의 대답은 우리 사이의 티키타카이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가족'이니까.

개정 근로기준법(8)

(전호에서 계속)

9.13. 시/군 최저임금(UMK/Upah Minimum Kota/Kabupaten)

9.13.1.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 시 시/군 최저임금 확정할 수 있다.
9.13.1.1.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주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9.13.1.2.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한 경제성장률이 매년 포지티브하여 주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9.13.2. 주 최저임금 공포 후 시/군 최저임금을 공포한다.
9.13.3. 시/군 최저임금은 주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9.13.4. 아직 시/군 최저임금이 없는 시/군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UMK(F1)=[(PPP Kab또는 Kota) / PPP Provinsi] **x** UMP(t)

*시/군 최저임금(제1공식)UMK(F1) =
지난 3년간 시/군 구매력 지수[(PPP Kab 또는 Kota) / (주 구매력 지수(PPP Provinsi)] **x** 현년 주 최저임금(UMP(t)

UMK(F2) = [(1−TPT Kab또는 Kota) / (1−TPT Provinsi)] **x** UMP(t)

*시/군 최저임금(제2공식)UMK(F2) =
[지난 3년간 시,군 완전실업율(1−TPT Kab 또는Kota)**x** 현년 주 최저임금UMP(t)]/
(1−주 현년 완전실업율)(1−TPT Provinsi)
*1−TPT Provinsi : 지난 3년간 고용율

UMK(F3)= [Median Upah Kab또는 Kota / Median Upah Provinsi] **x** UMP(t)

*시/군 최저임금(제3공식)UMK(F3) =
[지난3년간시/군 평균임금(Median Upah Kab 또는 Kota) 현년 주 최저임금 UMP(t)] /
주 평균 임금(Median Upah Provinsi)

UMK(t+1)=[UMK(F1)+UMK(F2)+UMK(F3)] / 3

*내년 시/군 최저임금(UMK(t+1)) =
[1공식최저임금(UMK(F1)+2공식최저임금(UMK(F2)+3공식최저임금(UMK(F3)] / 3

9.13.5. 시/군 최저임금은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다.
9.13.6. 시/군 임금위원회는 산출한 최저임금을 시장/군수에게 이첩하고 시장/군수는 주 노동국을 경유하여 주지사에게 추천한다.
9.13.7. 시/군 임금위원회에서 산출한 시/군 최저임금이 주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주지사에게 추천하지 못한다.
9.13,8. 현년 시/군 최저임금이 시/군 최저임금 상한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내년 시/군 최저임금을 현년 최저임금과 같게 추천해야 한다.
9.13.9. 주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시/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주 임금위원회의 권고와 의견을 구한다.
9.13.10. 시/군 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30일까지 공포한다. 11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하루 전에 공포한다.
9.13.11. 시/군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9.14. 영세사업자(Usaha Mikro) 및 소 사업자(Usaha Kecil)에 대한 최저임금 규정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나 주 주민의 평균 소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빈곤선보다 최소 25% 이상 높아야 한다(*125%). 최저임금 규정 예외에 해당되는 영세 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전통 자원 활용 사업이어야 하며, 하이텍 혹은 자본집약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조건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순자산이 최고 Rp.5 천만에 년간 매출액이 최고 Rp.3 억이어야 하며, 소 사업자로 분류되는 조건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순자산이 Rp.5천만 – Rp.5 억이어야 하며, 년간 매출액이 Rp.3 억 – Rp.25억이어야 한다.
*중 사업자(Usaha Menengah)의 조건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순자산이 최고 Rp.5 억 – Rp.100 억이며 년간 매출액이 Rp.25 억 – Rp.500 억이다. 대 사업자(Usaha Besar)는 순자산 Rp.100 억 이상 매출 년간 Rp.500억 이상이나 외자투자(PMA)회사는 태생적으로 대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9.15. 무노동은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나(No Work No Pay) 다음에 해당하는 무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지불 의무가 있다

9.15.1. 출근 불가 사유 발생으로 결근
9.15.2. 담당 일 이외 다른 일 수행
9.15.3. 휴식권 혹은 휴가권 행사
9.15.4. 근로자는 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무를 못한 경우
9.15.5. 와병으로 결근
9.15.6. 생리통으로 생리 첫날 및 둘째 날 결근 :2일
9.15.7. 근로자 결혼 : 3일
9.15.8. 자녀 결혼 : 2일
9.15.9. 자녀 할례 : 2일
9.15.10. 자녀 세례 : 2일
9.15.11. 아내 출산 혹은 유산 : 2일
9.15.12. 배우자, 부모, 처부모, 자녀 혹은 처/시부모 사망 : 2일
9.15.13. 동거 가족 사망 : 1일
9.15.14. 국가에 대한 의무 수행으로 결근 : 1년 미만 근무에 국가에서 받는 금액이 회사에서 받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적은 금액만 지불
9.15.15. 종교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 : 회사 전체 근무기간 중 1회만 지불
*이슬람 신자의 정식 성지 순례로 결근하는 경우 성지 순례 기간에 대하여 임금 지불의무가 있다.
9.15.16.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노조 직무 수행으로 결근
9.15.17. 주간 휴일권 행사
9.15.18. 년가권 행사
9.15.19. 장기 년가권 행사
9.15.20. 출산 휴가권 혹은 유산 휴가권 행사

9.16. 와병 결근 시 임금 지불 의무

9.16.1. 처음 4개월 간 : 100% 지불 의무
9.16.2. 다음 4개월 간 : 75% 지불 의무
9.16.3. 다음 4개월 간 : 50% 지물 의무
9.16.4. 이후 고용관계 종결시까지 : 25% 지불 의무

9.17. 정기적 임금 조정 의무

9.17.1. 임금조정에 관한 사항은 고용계약서, 사규 혹은 단체근로계약사에 규정해야한다.
9.17.2. 회사의 지불능력 및 생산성을 감안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해야한다.

(다음 호에 계속)

2021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1.1.28. ~ 7.3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5,000	
3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4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5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6	고문	최덕열	PT. SHINTA WOOSUNG	5,000	2020
7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8	부회장	강호성	PT. ANUGRAH CIPTA MOULD INDONESIA	10,000	2020-2021
9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0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1	부회장	이정휴	PT.GEE SAN INDONESIA	5,000	
12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13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14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15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16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17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18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1,000	
19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20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21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22	자문위원	이승민	YSM & PARTNERS	1,000	
23	자문위원	이종현	PT. LEO KORINSIA	1,000	
24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25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26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27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28	이사	길병완	PT. DAEYONG DUNIA SUBUR	1,000	
29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30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2020
31	이사	김인기	PT. INDOCORE PERKASA	1,000	
32	이사	김일태	PT. OROM	1,000	
33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34	이사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1,000	2020
35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36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37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38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39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40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41	이사	송판원	PT. KORYE POLIMER	2,000	2020-2021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2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JAYA	1,000	
43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44	이사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1,000	
45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46	이사	이강현	PT. HYUNDAI MOTOR MANUFACTURING INDONESIA	1,000	2020
47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48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49	이사	이한주	PT. SAJI SEGAR LESTARI	1,000	2020-2021
50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	2020
51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2020
52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53	이사	장윤하	PT. HARINDO	1,000	2020
54	이사	정제의	PT. SINERGI SUKSES INDONESIA	1,000	2020
55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56		no name		1,000	

2021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기준 : 납입일순

번호	성 명	금액 (IDR)	납입 연도
109	김재민	300,000	
110	강윤석	300,000	
111	서정현	300,000	
112	정창섭	300,000	
113	박건우	300,000	
114	공성일	300,000	
115	이승민	300,000	
116	장대영	300,000	
117	최상직	1,591,000	기부금
118	이정휴	300,000	
119	권민우	1,000,000	기부금
120	신기엽	300,000	
121	신호진	300,000	
122	최선명	300,000	
123	황선	600,000	2021-2022
124	오인태	300,000	
125	최상직	1,200,000	
126	이상복	300,000	
127	김혜아	300,000	
128	류완수	300,000	
129	문해정	300,000	
130	허성부	300,000	

[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2020년 연로하고 병든 불법체류자 A씨의 귀국을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회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지역한인회

현재 2021. 6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발리한인회 [1361-472 1735]	회장	윤 경 희	0811-3858-41
		수석총무	최 경 희	0812-3806-288
		총무	송 학 자	0812-3623-000
		총무/영사협력원	이 태 우	0812-3793-9452
		영사협력원	김 갑 수	0811-3945-52
2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사무차장	윤 병 렬	0811-210-4622
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수석부회장	주 정 만	0812-704-503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4	보고르한인회	회장	이 철 훈	0811-112-179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메단한인회	회장	홍 상 철	0811-608-724
		총무	손 근 환	0812-655-9418
6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111-5208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7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수석부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수석총무	조 웅 기	0812-4666-5907
8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수석부회장	김 화 룡	0816-807-681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수석총무	이 승 현	0811-9780-282
9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0	즈파라한인회	회장	김 신	0812-2991-58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수석부회장	이 옥 근	0815-7500-8170
11	땅그랑반뜬한인회 [0821-8166-6137]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18-660-732
12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3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14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정 성 화	0821-5497-9998
		수석부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배 성 운	0813-7180-6330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 1170 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I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TL axow 세무회계

세무상담은 택스로
세무사/AFPK자격인증자 이희영
대한민국세무관련조력/비거주자,
거주자판단자문 등
대한민국세무상담 환영

·주요업무·
세무조사전문
조세불복전문
기장신고대리
양도상속증여
세무컨설팅

·주요경력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
강서세무서,영등포세무서
양천세무서, 구로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재산세과 등 근무

(07807)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8 마곡747타워 602호(마곡역 6번 출구)
T +82-2-2662-7476
F +82-2-2664-7473
M +82-10-6599-7476
E taxlow7476@naver.com

어떤 모양을 통해
목적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의 본질 아닐까요?
디자인이라면 뭐든지 해결해드립니다!

PT.EOK ECO INDONESIA

인 테 리 어
익 스 테 리 어
경 관 조 명
간 판

- 디자인/설계/제작/시공 -
Tel. 021-7919-2426
M. 0852-8511-3888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복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오롬컨설팅
PT.OROM
KITAS, KITAP, SILVER VISA...
"20년 노하우로 키타스 수속은
한달안으로 종료하겠습니다."
Dalam satu bulan kami bisa selesai
proses KITAS sampai kirim visa kabel

[사무실 이전안내] OUR NEW ADDRESS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Jakarta Utara 14240
visa.orom@gmail.com T:(021) 4585 4910
한국인 Kakao ID: indocity1991 (021) 4585 4911
한국인 indocity1991@gmail.com (021) 4585 4207
visa.oromchris@gmail.com (021) 2245 5879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숭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혜광고(서동히)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58 76506040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윤)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군)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죠지언 퍼니쳐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쟈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끌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뽄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끌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둥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즈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뿔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땀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94 4338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효(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김균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포구	8990 5051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요리가	4584 4502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조선일보	2930 6886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안경원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18 4239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959311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콥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롬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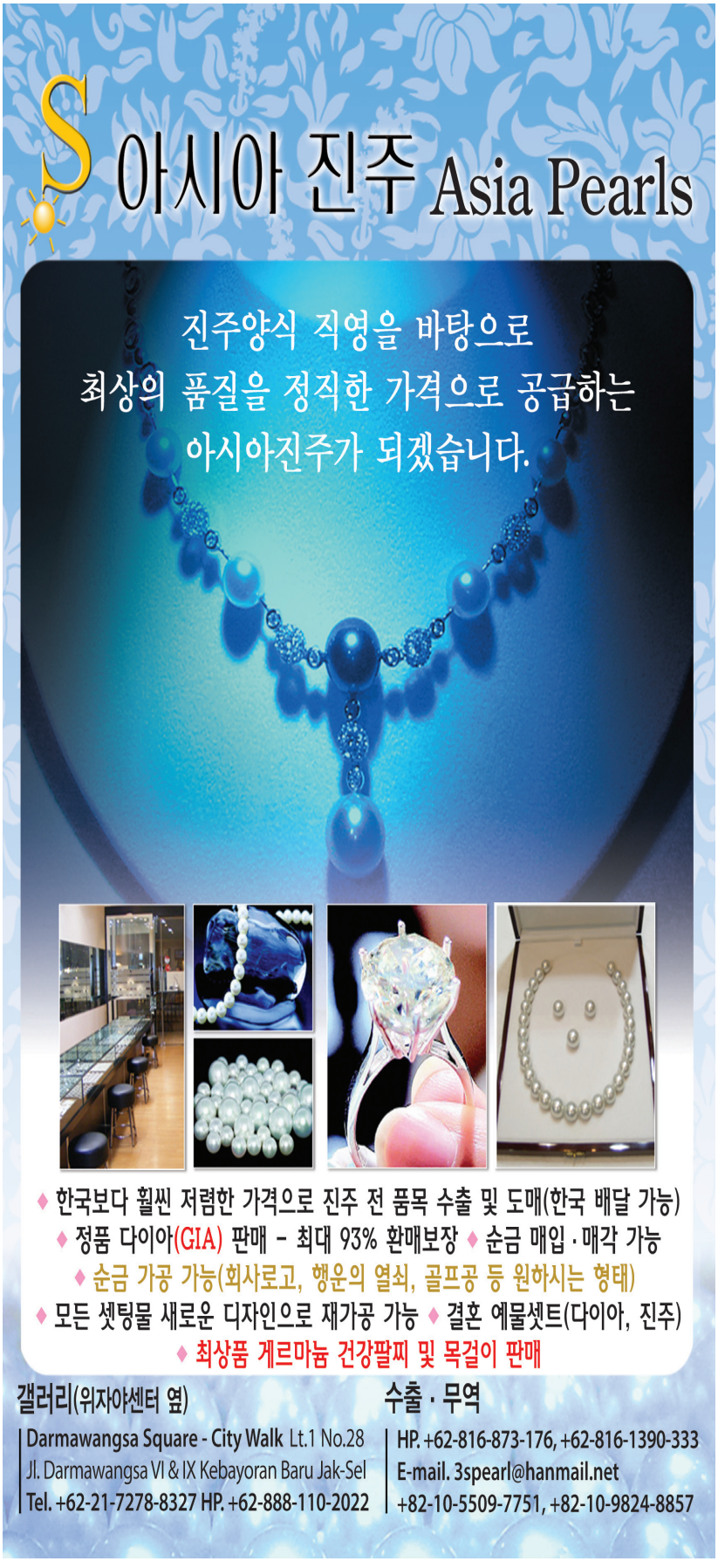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둥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져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쎄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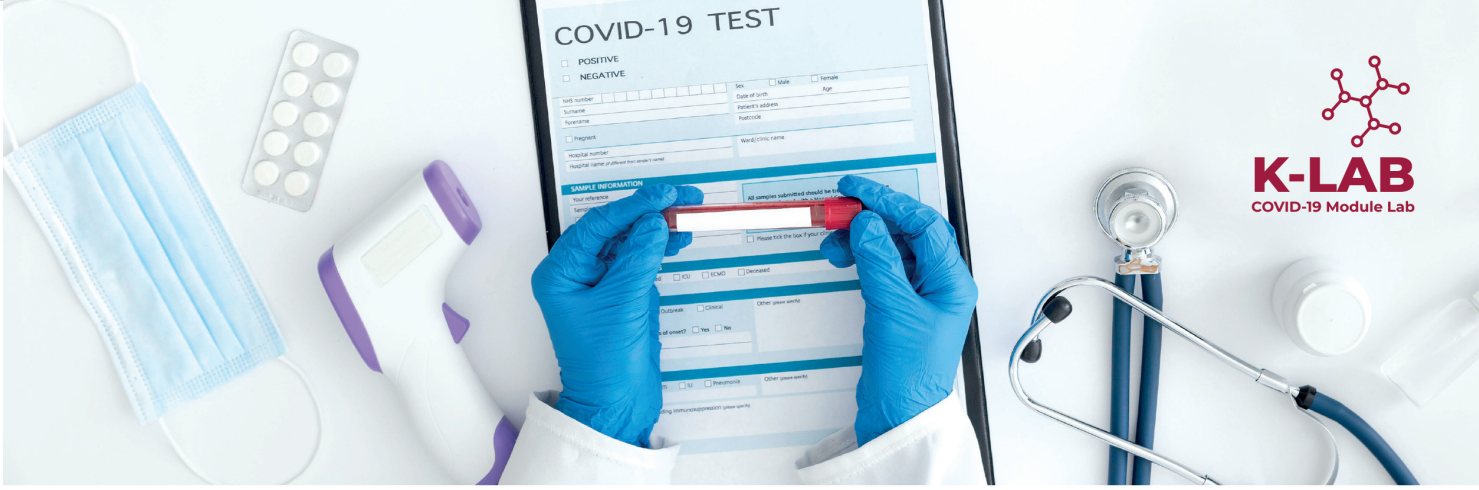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당분간발리한인회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발리 한인회 주소>
Jl. Kutat Lestari Gg. 6 No. 2A, Sanur,
Kecamatan Denpasar Selatan
Kota Denpasar Bali 80227
사무실 전화 번호 0361 472 1735
한인회 사무국장/영사협력원
이태우 0812 3793 9452



K-LAB
COVID-19 Module Lab

주인니대사관 공식지정 검사기관

COVID-19 PCR 검사센터

어르신, 맘 편히 검사 받으세요!

한국인 임상 병리사가 상주하는, 대사관 공식지정 검사기관
K-LAB에서 65세 이상 교민 분들에게 무료 PCR 검사를 진행 합니다.
인니 교민 사회에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기에,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맘 편히 조기 검사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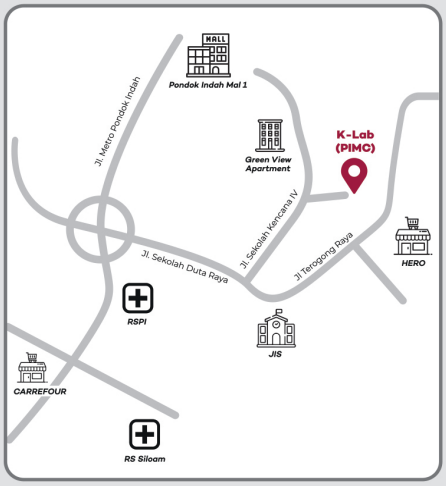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겨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대 상 : 65세 이상(신분증 기준 1955년생 이전 출생) 어르신
- 기 간 : 2021년 7월 15일 ~ 2022년 3월 31일
- 예약방법 : QR CODE, 한국인 전용 지원 센터 예약 후, 현장에서 신분증 제시

우리 국민들을 '연결' 합니다.

LX인터내셔널

※ LX인터내셔널에서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선생님들에게도 정기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

7:00 AM ~ 7:00 PM / 일요일 휴무
당일 결과 희망 시 11시까지 방문 필수

- K-Lab은 LG에서 분리해 새롭게 출발하는 LX그룹의 LX인터내셔널에서 운영됩니다.
- 본 검사실은 한국 전문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 검사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현지 보건부의 인허가를 득했습니다

+62 811 1900 5257
한국인 고객 전용 지원 센터
& Whatsapp & 카카오톡

QR CODE 간편 예약

www.sticorp.co.kr

ST International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